

서른하상 ★ 이야기



서른하상
★ 이야기

기념사

- 04 고희석 기념사 : 하상장애인복지관 30주년 기념 문집을 축하하며
- 05 허명환 기념사 : 서른살 하상을 기념하며
- 06 민혜경 기념사 : 개관 30주년을 맞아 떠올리는 하상의 자리매김!

수상작

- 08 김현정 대상 :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상
- 11 정한용 최우수상 : 만학도의 행복
- 12 김수옥 우수상 : HS 하랑카페 식물원
- 14 유원선 우수상 : 하상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한 1년
- 16 노민아 장려상 : 하상 마을 축제
- 17 유진호 장려상 : 하상으로 가는 길
- 18 이만호 장려상 : 하상과 나
- 20 장태균 장려상 : 행복나누리 식당
- 22 전인홍 장려상 : 맞춤
- 24 홍승희 장려상 : 마음의 위안, 하상



표지그림 강하람

출품작 (가나다 순)

- | | |
|--------------------------------|---|
| 25 강연재 재미있는 작업치료 | 44 원용삼 은총과 축복의 서른 하상 |
| 26 구승휴 따뜻한 IT 동아리와 봉사활동 | 45 윤태양 멘토와 멘티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친구 |
| 27 김경림 2018년 봄 날! | 46 이경선 별보다 빛나는 아이 |
| 28 김경아 나의 바리스타란? | 47 이상엽 뭉치는 마을, 함께하는 하상 : 코로나 시대의 마을축제 이야기 |
| 29 김만화 하상에게 바치는 프리포즈 | 49 이옥자 사랑, 기쁨, 행복의 하상장애인복지관 |
| 30 김미진 운명같은 하상 | 50 이윤경 서른의 하상, 그리고 마흔 넘어 알게 된... |
| 31 김상준 행복한 놀이치료 | 51 이인순 나와 하상장애인복지관 |
| 32 김선경 시각장애인 보행교육을 하며.. | 52 이주화 육지 속의 섬, 남이섬에 가다 |
| 34 김지배 두 가지 작은 기적 | 53 이한결 하상 복지관 내 식당 풍경 |
| 35 김하은 시간과 매듭 | 54 이홍실 하상과 홍실엄마 |
| 36 김형태 힐링 핫 플레이스 하상 | 55 정선혜 어른다운 어른 |
| 37 박민희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이름으로 | 56 조하진 마을 축제 "함께 하상" |
| 38 박상준 올바른 복지의 손길, 활동지원 | 57 한경희 여정에서 만난 인연들 |
| 39 박아름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신 소중한 사람들... | 58 한동현 나의 꿈, 나의 미래 |
| 41 변다혜 나의 두 번의 하상 이야기 | 60 한철호 행복나누리 자조모임 |
| 42 송지윤 받은 게 더 많았던 시간 | |
| 43 양준형 중동고 봉사동아리 인터렉트 | |

서른하상
* 이야기

하상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이사장 :: 고희석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이 마치 비가 내리는 모양입니다. 나무를 떠난 나뭇잎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한 뒤에 자신마저 하늘에, 바람에 내맡긴 그 가벼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성찰케 합니다.

나뭇잎은 나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새봄에 푸르른 나뭇잎으로 돌아나리라는 희망을 가진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맡깁니다. 자연은 이처럼 하늘의 섭리를 잊지 않고 매년 반복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보내고 1년이라는 세월을 지냅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무려 서른 번이나 사계절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바람과 눈보라를 겪으며 때로는 비 갠 하늘처럼 맑고 밝은 날도, 폭염 속에 메마른 갈증도, 추위를 참고 견디면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은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종사자, 이용자, 봉사자 할 것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그동안 함께 해오신 모든 분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글을 모아 다시 한번 축하하고자 합니다. 저도 몇 편의 글을 읽으며 옛 생각도 나면서 함께 하신 분의 고마움이 커졌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의 마음과 사랑, 정성이 차곡차곡 쌓여 오늘의 하상장애인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께 그 영광을 드리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거룩함을 사랑으로 드러내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우리도 성령의 바람에 자신을 내맡기고 새로움으로, 그 자유로움을 살아갑시다.

진심으로 하상장애인복지관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가호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 39) 아멘. ✨

하상장애인복지관장 :: 허명환

하상장애인복지관으로 첫 출근하던 그때의 저는 30대 초반으로 3살짜리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몇 번의 고시 실패로 잠시 머물렀다 가게 될 곳이라 여기며 시작한 직장 생활이 벌써 27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니던 성당이 그냥 반복되었던 일상이 아닌 오늘의 이 시간과 자리를 위해 미리 준비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첫 출근하던 그 시절은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문제 되지 않던 시절이라 약수동 집을 나설 때부터 대청역 하차 후 복지관 마당에서 계신 성모님께 출근 인사를 드리기 전까지 몇 번이나 담배를 피우고 끄고를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아 선호 사상까지 있던 시절인 입사 후 2년 만에 허 씨 집안 장손이 될 아들을 하느님께서 선물처럼 주시어 장남으로서의 체면도 세웠고 덕분에 지금까지 금연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명칭인 하상은 정하상 바오로 성인입니다. 정하상 성인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최초의 호교론서인 “상재 상서”를 올려 박해의 부당함을 항변하였다는 이유로 그해 서소문 밖 네거리 형장에서 순교로 신앙을 증거하셨습니다. 부친 정약종과 형 정철상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였으며 그 당시 정하상의 나이는 불과 6살이었습니다.

모친인 유소사와 누이 정정혜 역시 뒤를 이어 순교하였으니 한집안 다섯 명의 식구가 38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두고 같은 장소에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하상과 그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인의 반열에 올라 세계교회사 안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천주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50여 년의 신앙생활 속에 함께한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의 생활은

직장이 아닌 또 다른 신앙 실천의 자리로 저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선택으로 마련해 주신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 선조들과 같은 목숨을 바치는 피의 순교는 아니지만 현세의 여러 가지 유혹에 물들지 않는 좀 더 인내하는 신앙인다운 겸손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 장남이라는 이유로 현실에 타협하며 힘들게 느껴진 일상 안에서 직원들에게 버럭 할 때도 많았던 맘의 순교조차 이루어 내지 못한 것 같은 게으른 자신을 반성합니다.

제가 입사 당시 건강하게 공직생활을 하셨던 아버님은 현재 치매로 인해 아무런 기억도 없으시고 어머니 또한 4년간 저의 집에서 함께 모셨지만 치매로 인해 아버님과 같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면회하는 것으로 자식 된 도리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세상을 알 수 없듯이 본인이 겪지 않은 상황에 대해 관장으로서 우리 복지관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찰을 해보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관에서 저에게 내준 숙제를 하면서 생계를 위해 시작한 하상에서의 시간들 속엔 꺾꽂이 참아내야 했던 부족한 저도 있었지만 환갑이 된 지금의 저에겐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숙명과 같은 감사한 일상이었습니다.

잘 몰라도 말이 조금은 어눌해도 부족한 제 모습 그대로 위대한 조선의 민초(民草)들이 지켜내고 이루어낸 한국 천주교의 평등한 모습처럼 남들 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가진 하상의 직원들과 함께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까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남은 시간 평등과 겸손으로 채워가도록 애써보겠습니다. ✨

하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민혜경

1993년 3월 10일 하상장애인복지관 개관 당시를 떠올려봅니다.

대치택지개발지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곳...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3이다.

우리 하상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으로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 이미 개관하여 있었다. 대치 1단지 장애인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위해 마련해둔 것이리라 짐작해 본다.

우리 복지관 뒤편에는 1992년 10월 대치1단지 아파트, 대치2단지 아파트, 그리고 대청 아파트는 완공되어 입주를 서두르고 있었다. 대치 1~2단지 아파트에는 상가가 구획되어 있기는 했으나 자리 잡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았다. 그 외에는 변변한 상가도 편의시설도 없었다.

우리 복지관 길 건너에는 공무원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바로 앞에 공무원 아파트 8단지, 8단지 왼쪽으로 개포우성7차아파트, 현대4차 아파트, 한신아파트가 나란히 있고, 길 건너에 대우사원아파트, 현대사원아파트가 있었다. 영동대로 변을 따라서는 개포4, 6, 7단지가 쪼르륵 이어져 있었다.

개포 공무원아파트 8단지 내에 공무원 연금매장 지하에는 마트와 각종 상업시설이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용품과 재료들을 사러 가곤 하였다.

이 아파트들은 모두 1980년대에 건축되었기에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재건축이 완료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아파트도 있다. 새로이

건축을 완료한 아파트들은 이름에서부터 신축의 포스를 풍기고 있다. 공무원8단지아파트는 디에이치자이아파트로, 9단지아파트는 상록스타힐스 아파트, 대우사원아파트는 디에이치포레센트, 현대사원아파트는 래미안루체하임아파트, 개포4단지에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로 위용을 뽐내고 있다.

유관기관 종사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진작에 거기 아파트 하나 정도 사두지 뭐 했어? 그럼 지금쯤 부자가 되었을텐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아니 가장 후회되는 것이다. 왜 진작에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쉽다. 여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야말로 뽐뽐을 내더라도 사들일 마음이 든다. 그러나 그건 마음뿐이다. 그 당시 아파트 값은 지금의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당시 내 월급으로 여전히 쳐다볼 수 없는 큰돈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었기에 역시 엄두도 못 내었으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1993년 10월 3호선 대청역이 개통되기 전까지 인근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삼성역이었다.

직원들은 서울 전역 혹은 경기도 곳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복지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삼성역까지 나가야만 각자의 집으로 향해 갈 수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불편한지 모르고 다녔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울 지하철이 1~4호선까지 밖에 없었고 버스 한 번 타고 지하철이 닿는 곳에 있는 곳이라면 교통편이 너무 훌륭한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 갈 길이 바쁜 사람은 마을버스를 타고 삼성역으로 급한 걸음을 내딛곤 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삼삼오오 도란도란 이

야기꽃을 피우며 삼성역까지 걸어가곤 했다. 대치동을 지나 길 양옆에 새로이 생겨나는 건물들을 구경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삼성역에 다다른 듯했다. 걸어서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삼성역에 도착해서는 배도 고프고 그냥 가기가 서운한지 김밥에 라면이라도 먹고 나서야 지하철을 타곤 하고, 간혹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우리 하상장애인복지관은 1991년 3월 서울시로부터 6억원을 건립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치택지개발지구 내 500평 땅을 조성원가인 8억원에 건립부지로 승인받았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능한 것이었다. 복지시설 부지로 구획된 이곳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보증으로 서울시로부터 땅을 살 수 있었다.

1991년 9월 28일 드디어 김옥균 주교님을 주례로 우리 하상장애인복지관 기공식이 실시되었다. 그와 동시에 땅값을 갚고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에서는 자선바자회, 사랑나눔자선서화전, 젊음의대축제 콘서트, 크리스마스 카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톨릭 시각장애인 회원들은 안마를 하며 침을 놓으며 한푼 두푼 일하며 모은 돈을 흔쾌히 내놓으며 건립기금을 모아 나갔다. 시각장애인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자신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시각장애인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근사한 건물이 설립되고 나면 시각장애인이 그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차서 그렇게 열심히 모여 함께 했다. 그러나 기금 모금을 위한 사업은 성공보다 실패하는 사업들이 더

많아지면서 빛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복지관 부지 매입비와 건축 비용 등은 법인과 복지관에게는 돌덩이 같은 무게로 어깨를 짓누르곤 하였다. 이후에도 법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회, 수익사업, 모금활동으로 다양한 자금 모금 활동을 실시해서 갚아 나갔다. 하상장애인복지관 설립으로 발생한 부채는 개관 25년이 지난 드디어 2018년에야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올해로 우리 하상장애인복지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았다.

건물을 지으면서 생긴 빚을 청산한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 복지관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곳곳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제약이 많다.

처음 복지관이 설립될 당시에는 여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렇듯 치료교육 중심의 의료재활 모델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접근」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있다. 장애인도 지역주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부딪히며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아가며 소소한 작은 행복을 느끼도록 장애인복지관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30년을 향한 자리매김을 다짐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장애인의 보통의 삶’ 실현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에 따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지원도 필요하다. 요구되는 역할과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김현정

“선생님,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아시나요? 저는 오래전에 녹음 파일로 들었던 그 책 내용이 기억이 많이 나요. 혹시 선생님께서 녹음하신 책이었을까요?”

우연한 기회로 시각 장애인 봉사자분들과 함께 역사 박물관 견학 가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내가 도서 낭독 녹음 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대뜸 물어보셨다.

나는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녹음 봉사를 시작한 지는 횡수로는 5년이 되었지만,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녹음실 사용이 여의치 않았던 2년여를 빼면 고작 2-3년 밖에 되지 않는 완전 초보 봉사자이다. 20여 년 이상을 한결같이 봉사해 오시는 여러 선배 봉사자님들에 비하면 봉사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조차 부끄럽다.

“아... 제가 녹음한 책은 아닌데, 재미있게 읽으셨구나. 녹음된 책들 많이 이용하시나요? 어떤 류의 책들을 좋아하시나요?”

초면에다가 시각 장애인 분과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었던 나는 어색했던 분위기를 책 이야기를 하며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었다.

“지금 햇살이 엄청나서 눈이 부셔서 짜증 나네요. 글썄 이럴 줄 알았는데 선글라스를 안 챙겨왔지 뭐예요...”

유난히도 밝고 맑았던 날이라 버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이 부셨던 나는 잔뜩 인상을 쓰면서 강한 햇살을 원망함과 동시에 선글라스를 챙겨오지 못한 나의 준비성 없음을 자책하고 있었다.

‘아뿔싸, 세상에 태어나서 눈이 부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분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를 어쩐다...’

아무 생각 없이 푸념하듯 내뱉은 말로 그분께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싶어 순간 나는 몹시도 당황스러웠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말이다.

“아,, 그제,,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평생 눈이 부셨던 적은 없지만, 눈부실 정도로 햇살이 강하다는 것은 알 수 있거든요.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얼굴로, 제 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하하...”

순간 나는 강한 전기에 감전된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애인이라서 일반적으로 비장 보다 어느 면에서는 많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방관하는 것들을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눈을 감으면 파스한 햇살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바람이 살결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 좋은 느낌도 더 잘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불편할지 만을 생각하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고 감사한지에 대해 잊고 사는 나 자신이 한없이 작고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5년 전, 우연한 기회에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낭독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봉사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가 싶어 고민하며 며칠을 망설이다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낭독 지도를 받으면서는 다소 복잡한 절차와 기계치인 내가 녹음 기계들을 다루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책을 좋아하고 책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나였기에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다.

낭독은 그저 남들 앞에서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일이다.

평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는 눈앞에 있는 그림을 보며 눈과 귀로 함께 읽어 나갔지만,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낭독은 온전히 듣는 것에 의존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에 정확한 발음으로 일정한 톤을 유지하며 읽어야 하는,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녹음 전에, 내게 지정된 책을 미리 읽어 내용을 숙지하고, 끊어 읽고, 쉬어 가는 부분을 표시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성격이기에 나름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을 했었다.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이상은 녹음실에 나와 낭독을 하는 것이 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녹음실은 한동안 폐쇄되었고, 나는 미처 녹음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책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찌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외출을 삼가고, 평소 친분을 가졌던 사람들과의 만남조차 여의치 않았던 그 시간 동안, 나는 여유가 있을 때 주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 시각 장애인분들도 녹음된 도서를 들으며 갑갑한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기를 기도하곤 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한동안 녹음 봉사를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다른 일과들이 봉사를 했던 시간들을 채우고 있었고, 수

시로 변하는 아이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전업주부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바쁜 것 인지... 그러나 마음 한 편으로는 늘 다시 녹음 봉사를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원봉사는 어떠한 보수도 없이 순전히 자기 시간을 내 주는 일이라, 한 번 시작하면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강력한 의무감으로 쉽게 그만두기도 힘든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나의 시간을 내 주는 것을 어쩌면 주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엄마가 녹음 봉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궁금해 하던 초등학생 작은 아들을 데리고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찾았다. 체험학습 명목으로 함께 한 아들은 복지관 도서관의 점자책들을 신기하다며 만져보고 살펴보다가 그림책의 고운 색감들은 점자로 어떻게 표현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자기가 즐겨 읽는 만화 시리즈 같은 책들은 점자로 옮기면 백과사전 두께는 되겠다며 재미있는데, 읽기 힘들겠네 하며 안타까워했다. 도서관에 무수히 많은 책들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점자책들을 보던 아들은 엄마가 열심히 녹음해서 이 책들을 시각장애인들도 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는 엄마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그 순간, 아이들 만이 가지는 순수함과 가식 없는 사랑 표현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선명한 의미가 생겼고, 뭔가 작고 반짝이는 것이 내 가슴 속에 움트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낭독 녹음 봉사를 해왔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조용한 녹음실에서 마이크를 켜고 책을 읽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읽어 내려가는 소설을, 시를, 에세이를 그리고 자기 개발서 등의 내용을 시각장애인

정한용

분들이 듣고 삶을 보다 충만하고 아름답게 가꾸기를 소망했던 적이 있었을까...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파스함과 감동과 때론 가슴 시린 슬픔을 전달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한 적이 있었을까... 마치 기계처럼 일정한 돈을 유지하며 지문을 건조하게 읽어 내려가는데 급급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들과 함께 했던 짧은 시간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책을 읽어주는 사이트가 많아, 일정 비용을 내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다양한 책들을 골라 편하게 들을 수 있다. 바쁜 현대인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운전 중 또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쉽게 접속 가능한 읽어주는 책을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 소외계층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어주는 유료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상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녹음 도서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딱딱하고 한 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기계음 대신, 봉사자들이 낭독한 책들은 때론 한 템포 느리기도 하고, 때론 작은 숨소리가 들릴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로 곁에서 정성을 담아 책을 읽어주는 따스한 온기를 듣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은 하상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낭독녹음시스템이 있어 가능하고,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녹음 봉사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 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는 녹음된 책을 검수하고 재확인하며, 듣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잡음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기술자들의 노고도 무시할 수 없

다. 녹음하면서 잡음이 들어가지 않게 봉사자들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간혹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잡음은 듣는 이들에게는 소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가족이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하고 있기에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은 혼자서 아닌 더불어 함께 하는 존재이며,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 같은 기관이다. 그 커다란 나무안에서 나는 미미하지만 나무를 구성하는 작은 가지가 되고 싶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 아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그리고 나무가 사랑과 정성으로 맺은 열매를 그들이 기쁘게 나눌 수 있기를 염원한다.

오래전에 아이들에게 종종 읽어 주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책장에서 찾아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녹음 마지막 멘트를 되뇌어 본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하상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제작한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도서가 여러분의 정서 함양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내 나이 예순일곱에 중학교 입학하던 날! 교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한 소절씩 교가를 따라 부르는데 붓물이 터 지 듯 눈물이 실 새 없이 흘러내렸다. 누군가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자 여기 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저 사람들도 아픔을 토해내고 있구나! 배우고 싶었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에 이제라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설레고 행복했다.

교가를 배우는 시간이 끝나자 빨개진 눈을 서로 바라보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손을 맞잡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잘해봅시다. 열심히 배우시다.

우리는 소녀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음악 시간이 즐거웠고, 체육시간에는 굳어진 몸을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자세를 고쳐주시기도 했다.

매시간마다 교실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마주하면 선생님들은 힘이 솟는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

어느 날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의 부름을 받고 방문을 했다.

정유정 선생님과 마주 앉아 요즘 학교생활을 얘기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냥 웃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이왕 시작한 학교생활이니 그렇다면 대학까지 꿈을 가져보기로 했다. 하상에서 주시는 학자금은 그때그때 모아놓았다. 중학교 2년, 고등학교 2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대학을 진학할 때가 되었다.

국어 선생님은 승의 여전 문에 창작과를 가라고 권했지만 나는 친구대학 원예과에 원서를 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혼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다.

등록을 마치고 입학 날을 기다리는데 입학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과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 새파랗고 혈기 왕성한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을까?

입학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학장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약속을 잡아주시고 학교로 찾아오라고 하셨다. 학교로 찾아가니 교수님께서 놀라신다. "어머니 용기는 대단하시지만 여기 어린 학생들과는 안됩니다. 한 달도 못하시고 쓰러지십니다. 어린 학생 한 명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옮겨 드릴 테니 장학금으로 편히 공부하세요."라고 하셨다.

30분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리고 30분을 생각했다. 내가 다른 학교로 가면 어린 한 학생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 교수님께서 다른 학교에 전화를 하시어 내 얘기를 간단히 하시고 내일 찾아가라 하셨지만 나는 그 날로 학교를 찾아가니 늦은 시간인데도 교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대학교 2년 나에게는 꿈같은 세월이었고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의 격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을...전문대학이지만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참으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던 6년의 세월! 2년 동안 국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던 일흔두 살의 여대생은 어느 것에 비할 수 없이 행복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다시 한번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응원과 격려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엄마의 선생님이 되어 주었던 두 딸도 고마웠고 용기를 주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김수옥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있는 'HS 하랑 카페'는 하나의 작은 식물원이다. 많은 다육이와 몬스테라, 다양한 관엽식물이 아주 작은 카페의 삼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그 식물들이 내뿜는 생명력과 커피의 진한 향이 잘 어울린다. 도대체 이런 기막힌 조화를 만들어 낸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진다. 딸을 아끼는 잘 생긴 청년과 남궁이라는 희성을 가진 우아한 여인이 카페를 지키고 있다. 커피는 바리스타 청년의 솜씨이고 잘 자라고 있는 식물들은 남궁 여사의 솜씨란다. 그녀의 식물 사랑과 전문적 안목이 이 작은 카페를 식물원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 카페 식물원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겨우 1500원이라한다. 그것도 현금은 안되고 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커피 한 잔이다.

딸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혼자서 집을 찾아올 수가 없으니 모셔 오고, 마치면 다시 모셔 가야 하는 50살 먹은 '어린' 딸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의 식물들을 오감을 총동원하여 관찰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다. 카페 외부 벽에도 조롱박과 방울 주머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반긴다. 복지관 정문 입구에 무리 지어 셋노랑게 핀 생생한 국화꽃이 들어오는 이용자들을 반긴다. 주변의 모든 식물들이 생생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 꽃들과 식물들을 잘 가꾸고 있는 복지관과 카페를 칭찬해 주고 싶다. 마침 글쓰기 공모전 벽보가 눈에 들어온다. 복지관과 카페에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 용기를 내어 펜을 든다.

딸과의 '따뜻한 동행' 50년 동안 힘들고 외로워

서 같이 죽고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까지 굳건하게 잘 지켜내며 살아온 것은 이런 복지관이 이웃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딸이 어렸을 때에 비하면 장애인 복지도 많이 향상되었다. 옛날 딸이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할 때 아이와 같이 울면서 얼마나 하느님을 원망했는지 모른다. 딸에게 거지라고 돌맹이질을 하고 얼굴을 핥겨거나 넘어뜨려 피를 흘리게 한 동네 아이들에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분노로 치를 떨기도 했다. 그때의 아픈 상처가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생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식물들에 둘러싸여 모든 것을 다 잊고 진한 향의 커피 한 잔을 즐긴다. 딸 덕분에 행복한 힐링의 순간을 갖는다. 복지관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어디선가 날아온 비둘기 떼가 평화를 실어와 하상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을 더욱 평화의 길로 안내하는 것 같다. 어느 곳보다 질이 좋고 맛있으며 가성비 높은 커피를 서비스하는 하랑 카페는 장애인과 돌봄이들의 편안한 쉼터요 만남의 장소다.

우리 가족은 딸의 장애로 삶의 방향이 많이 변했다. 주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면 서로 목례를 하고 금방 친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이름을 서로 알아내고 화살기도를 해준다. '지금은 비록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참고 살아내면 언젠가는 많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도구로 쓰일 사람이니 건강하게 웃으며 잘 살아줘' 하고 기도한다. 우리 부부의 노력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 사회의 공공기관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 지적 장애를 지닌 딸이 그동안 겪은 차별과 소외를 털어내고, 좀 더 밝고 신명나게 살 수 있길 염원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 편견 없는 분위기, 아니 능력 없고 소외된 장애인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둔 부모가 더욱 큰 소리로 장애인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 어느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원하겠는가. 그렇지만 '창조주는 3%의 장애인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축복된 세상에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어느 신부님의 위로의 말씀이 큰 힘이 되어 용기를 내어 비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자녀들과 그 부모들은 자신과 자신의 자식이 장애인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한다. 사람들에게 그 3%의 역할을 맡아준 장애인들을 이웃으로 보듬고 도와주는 사랑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부모들은 자식의 그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회가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들의 이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불어 장애 자식을 저에게 주신 하느님에게 우리들도 이 사회에서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십사 하고 기도한다. 오늘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엄마로서 노력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다진다.

하랑 카페는 모든 이용자에게 삶의 활력과 진하고 구수한 커피 향을 선사한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카페지기의 정성스러운 손길이나에게도 다가와 하루하루 노쇠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이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카페의 식물들이 부럽다. 귀퉁이 한쪽에 쫓고 리고 앉아있는 고양이가 애처롭다. 찬 바람 불어오니 어찌 견딜까. 고양이 너도 조심스럽게 울타리 건너다니며 건강하게 살아가라. ★



유원선

이제 고3을 앞두고 대외 봉사활동은 올해가 마지막인 시점에서 코로나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활동적인 학교생활이 온 좋게 정상화되었다. 봉사 동아리 <인터랙트>에 들어와 대외 봉사로 작년에 연탄 봉사를 해 보긴 했지만 올 한 해 하상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했던 봉사활동은 나에게 낯설지만 보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으로 느껴졌다.

첫 번째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분들에게 개선될 점이 있는지 묻고 미니게임을 통해 몇 가지 상품을 나눠주는 활동이었다.

나는 돌아다니며 지역 주민분들에게 개선할 점들을 물어보는 것을 담당했다. 하지만 녀살이 좋거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살갑게 다가가는 편이 아니었기에 주저하게 됐다. 우리 조원들이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나 또한 용기를 내 물어보았다. 그런데 대답하시기를 꺼리시는 것 같았다. 낯선 사람이 갑작스럽게 다가와 물어보는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달갑지 않았을 것 같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동시에 복지관에서 매년 이런 봉사를 하실 분들이 떠올라 그분들의 노고에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은 점자블록을 조립하는 활동이었다.

3D 프린터로 뽑힌 마감되어 있지 않는 점자블록 조각들을 만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잘 다듬어 조립하는 일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많이 힘들어서 애먹었던 기억이 난다.

세 번째 봉사활동은 학교에서도 꽤 오랜 시간 진행했었는데 병뚜껑 모으기였다. 병뚜껑을 모아서 재활용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인터랙트 동아리>는 병뚜껑 모으기를 시작했다. 동아리 부원 중에는 교실에서 병뚜껑만 보면 페트병에 내용물이 있건 말건 뚜껑을 빼 가는 기행을 벌이는 친구도 생겨 웃음을 주었다. 경쟁이 붙어 쓰레기통을 뒤져보자는 친구도 나와 말렸던 기억도 난다. 몇 개월간 진행되었던 병뚜껑 모으기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모였다. 우리의 추억도 그만큼이나 쌓였다.

네 번째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복지관에서 받았다.

작년에는 마루공원에서 간단히 시작장애인 체험을 했었는데 올해는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강사분이 직접 강연을 하신다는 말에 지금까지 들었던 장애인식교육과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막상 복지관에 도착해서 강연을 들으니 매년 들었던 강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꼈다. 그때 강사님이 자신에게는 한 가지 장애가 있는데 맞춰보겠느냐고 물어보셨고 놀랍게도 강사님은 시각에 불편함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매우 놀랐고 신체적 불편함을 노력으로 극복하셨을 강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매체를 통해 접하던 장애인분들을 보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에는 비장애인들과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깨는 계기가 됐다. 강연 이후에는 시작장애인 체험과 시각장애인 체험도 글을 쓰고 대사와 상황 등을 나레이션으로 넣은 영화도 봤다. 하상장애인 복지관에서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초등학교에 입학 한 이후로 매년 들어왔지만 그 어떤 교육보

다 더 의미 있고 장애인 관련 인식이 바뀌게 되어 기억에 남았다.

마지막으로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마을 축제에 우리 <중동고 인터랙트 동아리>는 부스를 운영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등을 준비해 와서 팔았고 수익금은 전액 기부했다. 우리 부스가 생각보다 일찍 완판되어 다른 부스들을 많이 구경하며 마을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부스부터 맛있는 분식들을 먹을 수 있는 부스까지 어떤 부스에서는 감사하게도 동아리 부원끼리 먹으라고 분식을 주시기도 했다. 거기다 우리 동아리 부장이 시작한 버스킹도 축제의 흥을 돋우는데 한몫했던 것 같다. 부장을 선두로 해서 부원들이 차례차례 공연을 했는데 나중에는 복지관 직원분들도 노래를 불러주시며 동참해 주셨다. ‘재미있다’, ‘흥겨웠다’라는 말도 괜찮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축제였다’는 말이 더욱 와닿는 축제였다.

이렇게 하상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한 1년 덕분에 낯설고 어색했던 봉사활동은 조금이나마 몸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다시 회상해 보니 무더웠던 여름 반팔을 입고 봉사를 하던 내가 벌써 두터운 외투를 입고 연탄봉사를 갈 준비를 마치고 있다. 내년 이맘때에는 수능의 압박 속에서 공부를 할 것을 생각하니 몸에 익었던 봉사활동이 다시 낯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1년. 하상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했던 2023년은 어른이 된 후에도 살면서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



노민아

고만고만한 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 나에게 코로나 전 하상에서 매년 열리던 축제는 나와 아이들 모두 손꼽아 기다리던 행사였다. 아이들이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캘리그래피 필통도 만들었다. 인기 있는 활동을 기다리던 중 뭘지 알 수 없는 활동도 하였다. 시각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퍼즐 체험이었다.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아이들과 나는 모르고 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동네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선물도 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상 마을 축제는 인기가 많았다. 그러니 하상 마을 축제가 있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과 이웃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매년 만날 것 같던 아이들과 이웃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2020년 갑자기 닥쳤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험하지 못한 삶에 적응하느라 허덕이며 소통이 간절했던 시기, 하상은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었고, 나는 하상과 돈독하고 끈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지내는 날이 지속되며, 그 끝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상은 주민들과 함께 온라인 마을 축제라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준비했다. 내가 대진 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라 대진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그 소통의 축제에 아이들을 위한 활동으로, 풍선 아트와 시화 그리기를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겁 없이 풍선을 주무르고 작품을 만들 때 부모님들은 풍선이 터질까 조마조마하며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대진 초등학교에서는 마을 축제를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시화 그리기 활동을 하고 작품을 학교 담장에 전시하였다. 그렇게 가을 낙엽이 아름답게

물든 시기, 그 공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어 보았다. 하상이 준비한 온라인 축제는 소통하고 싶었던 모두의 열망으로 가을을 물들이는 단풍보다 더 붉게 이웃들의 마음에 소통이 주는 따뜻함을 물들였다.

아주 우연한 계기로 나는 하상에서 시각장애인 아동을 위한 촉각책을 만드는 기획에 참여했다. 그 책을 만들며 나는 장애에 대한 생각 나무가 내 안에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상 축제에 참여하고 하상과 함께 활동하는 동안 나의 마음속에서 장애 인식에 대한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어 어느새 나무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 나무의 힘으로 만들어진 촉각책은 내 이름을 품고 강남구 어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하상이 있는 곳의 행정구역의 이름이 바뀌기 전, 대단지 새 아파트가 지어졌다. 공사판이 마을에 들어서니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그때 하상에서 이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제안했다. 그렇게 5명의 이웃들이 모여 익숙한 듯 낯선 주제인 동네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을과 이웃에 대한 나의 생각도 가지를 뻗어 풍성한 나무가 되었다. 그때 나눈 우리들의 이야기는 간단한 자료집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하상 어느 부서에 보관되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상과 많은 활동을 하던 어느 날 나는 아주 소소한 후원을 시작했다. 한 달에 몇 번 버스 대신 걷기로 내 건강을 올리고 교통비를 아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커피를 포기하였다. 나는 하상이 동네 아이들과 이웃들로 북적이길 바란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누구나 따스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유진호

나는 오늘도 하상으로 가는 길이다. 하상으로 가는 길 문득 들었던 생각을 정리하여 본다.

난 십여 년이 넘게 하상장애인복지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 늘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며 이곳에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을까? 항상 궁금했고 언젠가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에 하랑 카페에서 가끔 커피한잔을 마시며 둘러보기만을 했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을 무렵 하상장애인복지관 선생님들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나에게 업무 제휴를 통한 상호 교류를 제안해 주셨다. 한결음에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찾아뵈었고 관장님과 선생님들의 환대에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는 특수체육강사가 파견되었고 우리 기관의 성인분들은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성인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이 아닌 강사로서 복지관을 들어가게 되었다. 덩동 소리가 나를 맞이하여 주었고 나는 하상에 소식과 역사가 담긴 게시판에서 발을 멈추고 복지관의 역사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마치 견학을 나온 유치원 아이처럼 곳곳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조금은 낯설었지만 곧 우리 기관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와 부모님을 뵈었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하상과 뛰어놀자는 서로 다른 기관으로 오랜 기간 존재하였고 서로의 만남과 교류가 있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분들은 이미 오랜 세월 하상과 뛰어놀자를 오가며 교육과 재활을 위한 생활을 하고 계셨다. 같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분들의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두 개의 기관을 교차해서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오로지 장애인분들의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에 따끔한 주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몇 해 전 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작은 시골마을이었지만 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과 행사를 위하여 마을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수학교 선생님과 복지관 및 교육기관의 선생님 그리고 마을의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매우 생동감 있었고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지역사회의 장애인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온전히 지역사회의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이 존재하고 각자의 영역이 필요하겠지만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인 교육 기관들이 역량을 모아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을 갈 때는 개포동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일원동 방향으로 돌아온다. 오고 가는 길에 늘 생각해 본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을 향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닌 더 많은 지역사회 전문가 및 당사자가 함께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상 가는 길이다. 잠시 시간이 남아 하랑 카페에 앉아서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어떤 분들이 오고 가는지 바라보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본다. 너무나도 편안한 표정으로 하상으로 오고 또 가신다. 하루를 마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육 도는 재활을 마치고 귀가하는 장애인분들도 계신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의 하루는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난 한 가지 바람을 가져본다. 하상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이 보다 행복하고 하상을 통해 위로받고 하상을 통해 치유받으시길 하는 바람의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

이만호

하상이라는 이름이 익숙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 오래되었네요. 2014년에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Happy Together"라는 시각장애인 체험과 점자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과 '따뜻한 IT'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속의 대화"라는 행사를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맹학교에서 사용할 촉각 교구를 만들거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하며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IT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3D 모델링을 통해서 맹학교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똑딱 시각장애의 6가지 종류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AR 앱을 만들기도 하고, 코로나를 겪어서 은퇴한 제가 스스로 돌아보기에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빛나던 시기를 하상과 함께했나 봅니다. 기대를 가지고 저를 만나려고 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많이 시들었어요.^^

동아리는 하상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님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관장님 소개로 서울맹학교와 한빛맹학교에 방문하여 맹학교 학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지요. 처음 서울맹학교에 방문했을 때는 3D프린터를 사용한 활동을 시도하다가 마무리 못 하고 끝난 정부 출연 연구소 팀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동아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셨던 선생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된 결과물을 보시면서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아이디어 회의는 서울맹학교에서 했지만, 3D프린터로 출력한 결과를 피드백 받을

때는 한빛 맹학교와 하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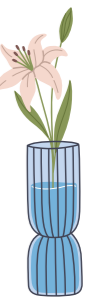
점자 목자 판과 글자 퍼즐은 서울맹학교와 한빛 맹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실제 학생들이 테스트했는데, 점자 표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맹학교와 직접 만졌을 때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빛 맹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선생님들과 꾸준한 협의를 하며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적이고 구별하기 쉬우며 보관에 쉬워지는 등 많은 발전을 해온 덕에 최종 결과물을 2020년 2월 개학식 때 한빛 맹학교에 증정식이 예정되었지만, 내 아픈 손가락과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으로 증정식 없는 증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절마다 하상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3D프린터로 제작한 촉각 교구를 활용하고, 우리 주변에서 잘 만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기도 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며 코엑스 사거리에서, 하상 마당에서, 일원동의 대진공원, 마루공원, 일원예코파크 공원들에서 행사를 할 때는 동아리 원 모두와 학부모님까지 동원해서 더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일원동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죠. 아 저분은 봄 행사에도 참여하셨던 분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하상에서 잠실 석촌호수로 산책을 떠났습니다. 덕분에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볼 수도 있었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도 있었죠.

하상이 있었기에 강남마을넷이라는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정말 재밌게 활동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나랑 의견이

다른 분과의 싸움이 아닌 토론이라는 것이 될 수 있고, 다른 의견일수록 배우는 것도 많아서 재밌었다고나 할까요? 어디든 소수자인 경우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은 아직 그 사회가 성숙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실천하는 데 별도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나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그의 부모님이 옆에 앉아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그림에도 가끔 코를 후빈다고 학생에게 야단을 말긴 했지만요.

지금은 느슨해진 상태로 쉬엄쉬엄 여행을 하는 중이어서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일들이 단체 특에 와도 전처럼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단체 특이 많아지기도 했고, 모처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둔지 꽤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상은 나의 황금기를 함께하고 은퇴 이후의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 고마운 존재죠. 에너지를 쏟아야 특의 그 세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가운 여러분! 우리 또 소풍 가요~ ★



장태균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온 계기는 2022년 6월에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복지관 취업을 위해서 송요한 취업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쉬다가 복지관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었고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난 연락이 안 오면 걱정이 되었는데 마침내 송요한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이라는 지하 일층 행복나누리식당에서 근무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좋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는 단계이어서 일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예전에 설거지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거기 식당 직원들 동료들 선배들이 먼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이 됐다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땐 모르는 것이 있었기도 해서 많이 여사님들한테 신경질을 내고, 짜증도 냈었지만 이젠 버릇을 고치고 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거기 있는 직원이랑도 일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짜증도 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맨날 웃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선생님들과 팀장님들한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었는데 그게 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어르신들한테 잘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설 때 쉬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라면 끓이는 것도 못했었고 밥 짓는 것도 못했었지만 지금은 하상장애인복지관 선배들과 선생님한테 배워서 밥 짓는 것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화상을 입을까 봐 무서워서 뜨거운 것도

못 만졌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빨래도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 통해서 배웠고 지금은 빨래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해주는 밥과 해주는 라면을 같이 끓여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남들 다하는 걸 왜 내가 못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땐 이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젠 하나하나씩 하상장애인복지관 선생님들한테 배워가면서 저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옆엔 하상장애인복지관 선생님들과 동료들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는 형, 누나, 동생들이 있고 저를 응원해 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사랑의복지관 선생님들 동료들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슬프거나 힘들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 생활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동료들과 차를 마시기도 하고 영화도 가끔 보러 다니고 월급 받으면 생활비 조금 쓰고 적금도 하고, 핸드폰비 공과금비도 제 스스로 낼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은행 가서 내주셨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젠 제 스스로 내고 다닙니다.

이것도 저의 꿈과 목표이기도 하고 현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자신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겼습

니다. 내년에 만약에 행복나누리 식당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저는 다른데 또 일자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하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다른데 가게 되면 일을 처음부터 또 적응해야 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식당에서만 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일을 하고도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오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서비스업 쪽으로 안 해 봤던 일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맨날 난 곳은일 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회생활이 하고 싶다. 이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난 가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때론 정규직 일자리도 구하고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TV에서 봤는데 대부분 오전 타임 일자리만 채용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 선배들과 놀 땐 놀고 일할 때에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놀기를 싫어합니다. 어디든 다녀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밖에서 활동 하는 게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가끔 성당을 갑니다. 기도를 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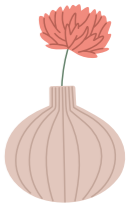
성당에서 저는 청년부 활동도 하고 친구들 형, 누나들 동생들도 새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바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난 나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상장애인복지관 행복나누리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내가 배울 수 있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상장애

인복지관에서 목요일에는 기타 프로그램을 동료들과 선배와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드럼, 보컬,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시작이라는 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공연 준비를 잘해서 공연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나의 목표이자 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12월 21일 공연 때에는 하상장애인복지관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것이고 공연을 잘해서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받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무대에 나가는 것도 처음이고 기타 공연도 처음이라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타 공연이 잘 돼서 우리 내년에 청년 밴드모임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진짜 행복나누리식당만 오면 즐겁습니다. 왜냐면 직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사회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



전인홍

조금 오래된 커피 광고 중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여기 있네, 하는 카피라이트를 쓰는 광고가 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작은 순간이라도 내 마음에 맞게 하고 싶은 것이 커피 한잔 같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스타벅스 같은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적이지만, 스타벅스가 맨 처음 유행하기 시작할 때 기성세대는 왜 이렇게 커피를 비싼 값을 주고 마시느냐 하는 반응들이 많았다. 커피 한 잔이라도 사치를 부려서 내 마음에 맞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놀이치료사로서 직업상 발달장애인들을 그중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만난다. 이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시혜적인 시선으로 학생을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친구가 될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내가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어떻게 기능하게 만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고 관계 맺느냐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의 세상에 들어가야 했다. 말하자면 커피 한잔과도 같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소리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흥미로운 소리를, 시각이 예민한 이에게는 흥미로운 볼거리를 주면서 점차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맞춤이 필요했다.

놀이치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있는 하랑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다 마시고는 한다. 내가 일하는 강남복지관에도 카페가 있고, 값도 싸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다른 카페들도 주변에 많이 생겼지만 나는 하랑 카페를 자주 들른다. 그곳에 가면, 일단 예쁘게 잘 가꾸진 화분들이 눈에 든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의 장면이 생각나는 화분들이다. 그 화분들이 눈에 드는 건, 화분을 잘 가꾸는 선생님의 손길이 닿아서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속 카페를 오아시스 같이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들게 만든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선생님은 그곳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큰 화분들 뒤에 나를 숨기고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곤 하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숲속에 들어와있는 느낌이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식물 카페들이 많지만, 그런 곳들과는 다른 하나하나의 애정 어린 손길과 눈이 닿은 흔적들이 이곳에는 있다. 어느 날은 예쁜 장미 한 송이가 컵에 담겨있길래 어디서 사 오신 거냐 물으니 복지관에 핀 꽃에서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을 주워다가 잘 담아놨다고 하신다. 가만히 있으면 곧 떨어지고 시들 장미가 아주 맞춤으로 더 예쁘게 담긴 것이다. 놀이치료사인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하나 거기에서 배운 것 같다.

예쁘고 잘난 구석을 찾아주어 복돋아 주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니 카페에 계신 선생님의 손길과도 닮아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직업재활을 도와주

는 선생님 말고도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에게도 그런 맞춤을 볼 수 있다. 한번은 커피를 만들면서 기차길 옆 오막살이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분을 보고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니, 그분이 나를 볼 때 종종 그 노래를 불러주신다.

아마도 그분은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게서 흥과 편안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타주시는 커피도 적당했다. 다른 분은 늘 나를 보고는 한 마디씩 인사를 건네주시는데 그 순간에 참 따뜻함을 느낀다.

타주는 커피도 적당하지만, 누군가를 관찰하고 건네는 말이나 작은 행동들이 참 사려 깊게 느껴진다. 카페에 가득 찬 화분처럼, 한잔 두잔 마셔가는 커피처럼 알맞고도 적당하게 아름다운 곳이다. 화분에 잘 담긴 꽃과 풀처럼, 꽃과 풀이 그저 지천에 피어있는 것이라면 지나쳤겠지만 하나하나 예쁘고 귀한 구석을 찾아 잘 담고 가꾸면 더 잘 피어나는 것처럼, 하랑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잘 가꾸고 보듬은 결이 느껴진다. 나는 오늘 당신과 무엇을 맞추길 원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잘 바라보고 또 가꿔야겠다. ✨



홍승희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하상과 함께 했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에게 참 마음의 보석 같은 하상과의 함께했던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이가 있어요. 그중 첫째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이가 네 살 무렵 즈음,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알게 되어 처음 방문했던 생각이 나네요.

저는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암 투병을 마치고 아이의 장애를 인지하고 방문했던 첫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때였는데, 아이와 저 모두 하상과 함께 매일 자라고 배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따뜻한 치료 선생님들과 복지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아이는 어린 시절을 거의 하상 조기교실 프로그램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자라 주었고, 저와 저희 가족 또한 부모모임, 여러 프로그램도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 많은 위안과 소통할 수 있었던 참 고마운 곳이었어요. 하상에서 저는 거의 아이와 매일 방문해서 이곳에서 많은 감사한 좋은 인연도 알게 되고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가고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쁘고 함께했던 에피소드도 참 많네요. 양재천에 성인장애인분들과 같이 수영도 하러 가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하상 카페에서 늘 예쁜 꽃과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는 남궁 선생님께도 항상 감사했어요. 하상은 한결같이 저에게 그런 친정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점점 성장하였고, 하상에서 처음 활동지원사 선생님도 만나 엄마 아닌 타인과의 첫 사회생활도 경험하였고, 저 또한 이곳에서 활동지원사를 이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미용자격증을 따서 봉사해 보고 싶은 게 바람인데, 둘째를 낳고 둘을 보다 보니 생

각보다 더 부지런해져야겠더라고요.

언젠가 아이가 잠깐 안 본 사이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아는 엄마가 저희 아이까지 데리고 상담을 들어간 거였는데 그십분이 저에게는 정말 십 년같이 길었던 순간으로 기억해요. 하얗게 질려 울먹이는 저를 안심시켜 주시고, 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나눠 지하철역부터 근처를 다 돌아봐 주셨고, 아이가 웃으며 하상에서 나오는데 정말 주저앉아 아이를 꼭 안고 영영 울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저를 다독겨 주시며 얼마나 자신의 일처럼 모든 선생님들께서 대처해 주셨는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고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는 가족 같은 선생님들이 있어 앞으로 십 년, 이십 년 함께하고 싶은 곳이에요.

하상에서 처음 여행도 갔던 것도 기억나네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였는데 가족 휴가제에 당첨되어 아이들과 좋은 추억도 쌓고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다시 한번 건강의 악화로 암 투병을 하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긍정적이었던 저도 무너졌던 그런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상은 저희 가족과 함께했던 것 같아요.

늘 믿음이 가는 곳이라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만나 도움받고, 여러 프로그램도 참여 하며, 힐링 하고 이겨내며 완치하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저나 저희 가족에게는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일이 많았던 함께해 준 하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상의 서른을 누구보다 축하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나 아이 모두 느리고 미비할 수 있을지라도 분명히 성장하였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하상장애인복지관의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재미있는 작업치료

강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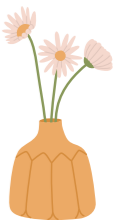
저는 양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강연재”입니다. 저는 아기 때 뒤집기가 늦어져서 어머니께서 삼성서울병원에 갔다고 해요.

13개월에 돼서야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5살 때쯤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배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오래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방상 “뒤꿈치 내려”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배에 근육이 차지 않아 있다 보니 손가락 근육은 나쁘지 않았으나, 손가락 끝에 큰 힘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꾸준한 작업치료가 필요하던 차에 드디어! 하상복지관에서 연락이 오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제가 7살 때 대기를 걸어두셨는데, 지금, 5학년이 돼서야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우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작업치료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성격이 부끄럽고 소심한 성격인지라 먼저 말을 건네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어색하지 않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저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저의 취향과 관심사를 먼저 물어봐 주시고 저의 취향을 고려하여 재미있을만한, 제가 흥미롭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재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예쁘고 귀여운 것을 좋아하여 비즈로 반지 만들기, 네일아트 하기, 바느질하기, 컵받침 만들기, 보석 십자수 만들기, 종이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만들기, 타로 점 카드 만들기, 종이도넛 만들기 등등 많은 재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료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재미있는 미술 치료 같은 느낌이라서 매번 선생님과 치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머리 묶기, 칼을 다치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단추 잠그는 법, 빗질

하는 법, 옷 입고 벗는 법 등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많은 동작들을 팔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가르침을 잘 유념하여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것들 중 가장 중요하고 자주 말씀해 주시는 주의 사항은 제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힘을 줄 때 손목에 주어야 하는 것을 어깨 힘으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인이 되어도 유념하여 까먹지 않고 지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본 치료실은 수두룩하게 많지만 그중 선생님께서 저의 잘못된 자세와 고쳐야 할 자세를 정확히 잡아주신 선생님은 유일합니다. 제가 치료를 받으며 느낀 점은 지겹고 힘든 치료라기보다는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는 치료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을 굳이! 하나를 뽑자면 이 복지관을 다니는 기한이 2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따뜻한 IT 동아리와 봉사활동

구승휴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본 공모전을 본 후 제가 물어본 주변인들이 그러했었고 당장 몇 년 전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장애인복지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하상장애인복지관을 만나며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하상장애인복지관과의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을 2018년에 따뜻한 IT 활동을 하며 접했습니다. 따뜻한 IT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동아리였고 그에 따라 연계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할수록 하상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뜻한 IT 동아리에서 한 활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용 교구 제작이었습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만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구는 점자를 처음 배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더 쉽게, 더 접근성 있게 배울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교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선 장애인에 관해, 특히 시각장애인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였지만 동아리 활동 초반 하상에서 했던 회의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장애 인식 교육을 해주셨고 시각장애인이셨던 당시 하상 관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에게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직접 말씀해 주시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셨으며 제가 앞으로 할 활동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아리 초반 하상에서의 회의는 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이자 3년의 시간동안 따뜻한 IT

활동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상에서 준 도움은 첫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아리활동을 하며 만들어낸 다소 부족했던 결과물을 실제로 맹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순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점자 교구를 만들며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제작자인 저희가 비장애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처음 배우는 걸 돕는 교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피드백해 줄 사람이 없다는 부분은 제작자인 저희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었지만 이 부분도 하상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상에서는 저희 동아리와 주기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주셨고 하상에서는 늘 관장님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주시며 저희의 결과물을 직접 봐주시며 피드백 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저희가 만든 교구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맹학교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하상에서 연결해 준 맹학교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회의 및 피드백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점자 교구를 만들 기쁨과 성장, 완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함께해 주었고 또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준 도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자 교구뿐만 아니라 저희 동아리에서 만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칠교, 촉각으로 즐길 수 있는 테트리스, 점자 교구를 응용했던 퍼즐형 점자 교구 등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을 전부 꼼꼼히 봐주시고 피드백해 주셨으며 저희가 만든 교구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 또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주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행사에서는 각종 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고충을 느껴볼 수 있었으며 그들이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하상에서는 저희 동아리도 행사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셨고 저희는 장애

인식개선 활동에도 힘을 쏟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았습니다.

동아리 초반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한 저였지만 하상과 따뜻한 IT와 함께한 시간은 어느새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하상과 함께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하상의 도움을 받고 했던 점자 교구를 만들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좋은 추억과 많은 도움을 주신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감사의 말씀과 응원을 보내며, 저의 글을 본 누군가가 하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저와 비슷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8년 봄 날!

김경림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책 읽는 봉사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한 평 남짓 작은 공간에서 녹음, 수정을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낯선 일에 도전한 것이다. 그런데 집중해서 해야 하는 작업이기에 긴장감이 생기고 귀가하는 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솔직히 자신이 없어졌다.

담당자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곳에서 다른 봉사할 게 있는지 여쭙보니 식당 봉사를 소개해 주셨다.

식당 봉사는 처음이어서 조금 쑥스럽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하상 친구처럼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접할 기회가 적어서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했다.

식당 일은 영양사 선생님, 조리사 여사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하상 친구들, 봉사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 식당의 메뉴 수준이 외부 식당보다 훌륭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 7시부터 준비하고 한 시 되어서야 비로소 하루 일정이 끝난다. 그래서 강남구청 자원봉사 센터에 전화해서 복지관 중에서 최고의 식당이라고 추천을 했다. 제가 여러 복지관에서 봉사를 해봤기에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나는 이용객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정성을 다하는 조리팀의 노고를 보면 밥 한 알, 김치 한 조각 버려져 나가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가끔은 이용객들도 식사하기 전 과정에 참여하여 본인들의 식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불평, 불만은 적어지고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식재료 다루기, 조리 방법, 위생, 청결, 배식 뭐하나 혼잡

을 곳 없이 어쩔 일사불란하게 자기 맡은 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하상 친구들이 훗날 어디에서든 사회의 일원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해 원하지 않게 봉사를 잠시 쉬어야만 했다. 2023년 5월 드디어 다시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궁금했던 하상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고, 3년 만인데 나를 기억해 주는 친구가 있어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다.

그사이 더욱 어른스러워진 친구도 있고 아쉽게도 노래를 잘하던 친구는 보이지 않아서 궁금하던 차에 배식하다가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다.

맥도날드에 취직했다고 좋아했던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곳에서의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독립적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친구가 나를 기억하고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셨어요."라고 하는 말을 해주니 감동이었다.

난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 친구가 기억해 준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우리 친구들이 나를 가깝게 다가와 주는 듯해 감사하다.

나의 봉사는 2003년 성가정 입양원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의료원, 대치노인복지관, kb골드라이프 그리고 끝으로 하상에서의 봉사는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졸업 후 오랜만에 쓰는 글이라 미흡하고 부끄럽습니다. ★



나의 바리스타란?

김경아

안녕하세요. 저는 하상장애인복지관 하랑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24살 김경아입니다. 제가 직업으로 바리스타를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에 기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잠시라도 기쁨과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하랑 카페에 들어와서 선생님과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라떼아트를 마셔보니까 우유스팀이 잘 되어야 되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야 '아정성껏 있게 커피를 만들면 손님들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행복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만든 커피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저도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남궁연진선생님과 저랑 같이 커피 잔에다가 기본적인 동그라미를 부어서 초코 소스를 그려서 마지막에 원두를 올려서 작품을 만드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잘 만들었니?'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 사진을 찍고,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까 우유스팀을 잘 되어서 맛있구나! 손님들이 기분이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랑 카페에 일하면서 친구, 동료, 오빠들과 선배들, 후배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카페에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의논하면서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나가서 바람 한번 쐬러 가보면 어떨까? 하면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남이섬'이라는 카페 투어를 하면서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친구와 선배들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 지금 카페 투어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질문을 하면서, 친구들과 선배들이 하는 말은 '저는 하랑 카페에 일하면서 재미있고,

하상에게 바치는 프리포즈

김만화

걸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자주 걷는 길이라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모를 일이지요. 올해 초 개포 3동으로 이사 온 뒤 낯설기만 했던 동네에서 제 시선이 유독 머물던 곳은 하상장애인복지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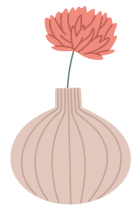
지난 3월 말 동네에 벚꽃이 만개할 무렵 하상나눔마을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자 지역의 큰 축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붉은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려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을 때만 해도 매년 수만 명 이상이 복지관을 찾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는 공간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하상장애인복지관이 일궈온 공간은 그러한 문화의 물리적 결정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7080 장수사진 촬영부터 플라스틱 병뚜껑과 폐우산을 모아 새로운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 장애인식 개선 활동, 사회적 단절을 막기 위한 HaHa 해피데이, 재즈와 시 등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적 소통은 연대와 협력의 흔적들입니다. 공간을 통한 교류와 결합은 건강한 지역 문화를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긍정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앞날을 기대하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시간의 뿌리를 되짚어 본다면 1993년 개관 이래 복지관의 선한 의지가 여전히 지역사회로 드넓게 환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웃 주민의 생활 거점으로서 하상장애인복지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까지는 아마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흘렸던 땀과 헌신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고요 속에 머물지 않고 소란한 길위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겼던 자원봉사자분들, 신발과 차가 다니는 길 위에서 마른 굽이 닳도록 뛰었던 관계자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편견을 허물고

경계를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한 분들 덕분에 어찌면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재와 사회 분열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목표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자원봉사 활동가로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의 복지지원 서비스가 지역 구석구석에 밀착 전달될 수 있도록 손을 보태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상장애인복지관과 새로운 연으로 만나길 꼭 희망합니다. ✨



운명같은 하상

김미진

하상과 저와의 인연은 2007년부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졸업을 1년 앞둔 시기. 역량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저는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각장애인 자녀 학습지도와 발달장애 청소년 주말 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익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실습 기간이 다가왔고, 마침 집이랑도 거리적으로 가까웠던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상과 제가 이렇게 지나긴 인연을 맺어올지는.

실습을 하며 정 많고 열정 가득한 선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밑거름을 바탕으로 무사히 졸업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치열한 취업 전쟁에서 저는 봉천동의 한 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 후 첫 출근 날 제가 소속된 팀의 팀장님께서 “하상에서 실습했으면 제대로 배웠겠네!”라는 칭찬과 인정도 받았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안정적이고 즐거운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갑자기 하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무언가에 홀린 듯, 끌리듯 접속을 했습니다. 두둥! 거짓말처럼 무언가에 이끌려 홈페이지에서 본 것은 마침 지금 하상에서 직원 채용을 한다는 공고였습니다. 그것도 ‘학습지원센터’에서 ‘점역사’를 채용한다는 공고였죠. 마침 저는 준비된 인재인 마냥 점역사 자격증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점역 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기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근무하던 저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날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몇 번이고 고쳐 쓰며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해 새롭게 시작할 상상에 가득 찼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지금 공고가 올라온 저 하상의 점역사 자리는 내 자리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확신에 증명이라도 하듯 저는 당당하게 2013년에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하상장애인복지관은 개관 30주년, 저는 입사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하상에 온 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시각장애인을 만나며 함께 울고, 웃고 긴 시간의 추억을 쌓아 올렸습니다.

시각장애인 리더 양성을 위한 강연회를 기획하여 국내 굴지의 강연자들에게 맞춤형 강의를 부탁하고자 밤새 고민하며 써 내려갔던 제안서, 그러던 중 강의를 하겠노라 답변을 받았던 날은 저도 모르게 조용한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복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1:1 학습 멘토링을 받던 시각장애인 학생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여 감사 인사를 하던 날, 청년 시각장애인이 스피치 교육을 받고 한 강연회에서 진행자로 서게 된 날 등등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고, 계획했던 목적을 하나하나 달성하는 데 함께한 순간들이 잊히질 않습니다. 게다가 하상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도 했고, 두 명의 어여쁜 자녀까지 생겼으니 하상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굵직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경력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다 보니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헤이해져가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글쓰기를 통해 그동안의 하상과 나와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지금의 모습이 반성도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 하상에 입사하고 싶은 굴뚝같은 마음으로 이력서에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썼던 이력서를 썼던 마음을 되짚어 봅니다. 앞으로 하상과 나와의 인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얼마나 더 끈끈해질지는 모르지만, 하상에 몸담고 있는 시간들은 최선을 다하며 지내다 한 번씩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 글을 떠올리며 힘을 내야겠습니다. ✨

행복한 놀이치료

김상준

나는 4학년이고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이인순 선생님께 놀이치료 수업을 즐겁게 받고 있다. 2022년 추운 1월에 하상복지관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온 뒤로 나는 매우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온 뒤로 나는 친구들과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다. 그리고 매우 매우 친절하시고 성격이 좋으신 이인순 놀이치료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우정이 더 튼튼해졌으며 사회에 훨씬 더 능숙해졌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동생과 함께 놀이도 하고 친한 다른 동생과도 놀이를 하며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였다. 동생과 함께 놀이를 하기는 했지만 동생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제발 박수 치는 것을 그만하면 좋겠다. 그리고 매미 소리를 따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든 박수를 안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이게 동생에게 바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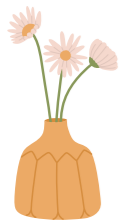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나는 한 살을 먹었다. 주로 인생게임이나 오목 같은 게임을 배우고 있고 그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임은 태극 도미노이다. 태극 도미노를 할 때면 선생님과 특이한 말투로 대화하며 주고받는 게 정말 웃기고 재미가 있다. 제일 어려운 게임은 체스이다. 체스는 움직이는 방향이 다 달라서 외우는 것이 어렵고 예측하기가 어려워 아직 어려워한다. 앞으로 배워보고 싶은 게임은 치킨차차이다. 치킨차차를 다른 동생과 해봤는데 기억력이 필요한 게임이라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그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는 많은 게임을 하며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전엔 보드게임을 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지금은 보드게임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놀이하는 것이 재미있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곳에 온 덕분에 아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슬펐던 일, 기뻐던 일을 이야기 나누며 공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지켜야 할 약속을 알게 되었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예전에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인순 선생님이 만든 동아리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한다. 나는 미술관에 간 것은 기억나지만 다른 활동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동아리에 다시 참여해서 여행을 더 다녀보고 싶다. 이인순 선생님과 워터파크도 가고 에버랜드 숙소에서 친구들과 같이 자는 것도 하면 좋겠다.

친구들한테 EQ와 IQ 발달에 좋다고 알려진 종이접기도 알려주며 함께 놀고 싶다. 그리고 또 음악도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싶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정말 많다. 그리고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다 같이 모여 캠핑을 가보고 싶다. 캠핑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마시멜로우도 구워 먹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어두운 밤에 담력 체험도 함께 해보고 싶다. 그리고 복지관 친구들과 봄 소풍을 가보고 싶다. 돛자리를 펴고 맛있는 음식을 서로서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최근 스케줄이 바뀌며 놀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스케줄이 조정되어서 놀이치료를 받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매주 한 시간씩 놀이치료를 다니고 싶다. 그리고 매주 공휴일에 다 같이 모여서 소풍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상장애인복지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상복지관은 늘 언제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이며 이곳은 발전이 되어서 매우 큰 복지관으로 성장할 것 같다” ★



시각장애인 보행교육을 하며..

김선경

요즘은 걷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눈으로 땅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귀로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듣는 등 자연의 모습을 느끼며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이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걷기란 힐링보다는 온 정신을 집중하고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흰 지팡이로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걸어가는 그분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걷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시각장애인 보행 교육’ 홍보를 하며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안내견 지원 등 시각장애인의 이동 지원에 대한 제도가 있어 굳이 흰 지팡이로 혼자 걸으며 다니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신청이 들어올까?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지를 올리자마자 3명이나 신청 전화를 주셨어요, 깜놀~!!

“혼자서 보행이 가능한 정도인 시각 장애가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전맹(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상태)이 되었어요. 그래서 맨날 가던 집 앞에 **역을 혼자 못 걸어가게 되었어요. 저 신청해도 되나요?”, “직장을 새로 들어갔어요. 시청역에서 5분 거리인데 역 안이 너무 복잡해서 자주 헤매게 되는데 보행 교육 좀 빨리 해주세요, 출근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3급인데 진행성이라서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불안해서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어요, 마침 제가 사는 곳이 송파인데 가까운 곳에 복지관이 있고 해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서 신청했어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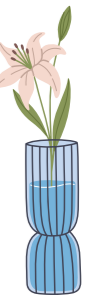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보행 교육 전문 강사와 담당자 그리고 교육생 한 명 이렇게 셋이 한 팀이 되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이 맹학교나 시각장애인 연합회 등에서 기초 보행 교육은 받은 분들이라서 지팡이 잡는 법 같은 기초 내용은 건너뛰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육 중 특히 힘들었던 부분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장애인은 대부분 눈으로 보고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고 건너면 되지만, 교육생들은 단지 청각적인 감각에 100% 의존해야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는 방법, 나의 몸을 좌우 치우치지 않게 정렬하는 방법, 최대한 도로의 연석에 가까이 서는 법, 교통의 흐름을 듣는 방법, 평행 도로, 직각 도로의 구분, 차량의 1시 방향에서의 엔진 소리 듣기 등등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해야 안전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휴우 정말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흰 지팡이로 걷을 때는 온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지, 현재 위치에서 약 오른쪽으로 5걸음 정도 걸어가면 음식점이 나오는데 음식 냄새도 캐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서들과 정보를 가지고 흰 지팡이로 뚜벅뚜벅 당당히 걸어갑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분들? 저도 보행 교육을 하면서 눈 감고 몇 걸음 걸어보기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보행을 하신 분들은 그 성취감이 대단했어요, 혼자 해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

교육에 참여하신 분께 몇 달 후에 다른 일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화 수화기 안에서 “**샘 안녕하세요~ 또각, 또각 어쩐 일이세요?”라며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보행 교육받은 목적지로 흰 지팡이로 걸어가는 중이라고, 저는 방해가 될까 봐 나중에 전화드린다고 했더니 자신은 멀티가 되는 사람이라서 보행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다고 재밌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에겐 별 노력 없이 걷는 행위가 누군가에겐 많은 훈련과 노력을 통한 일임을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흰 지팡이로 자신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분들의 동행자가 되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



두 가지 작은 기적

김지배

은퇴 경력 14년 차를 보내고 있는 나는 현직에서 떠나면서 심사숙고 끝에 세 가지 다짐을 가족 앞에 선언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정서적 건강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균등하고 균형 있게 내 일상의 삶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 여름, 이런 결심으로 인연을 맺은 곳이 행복한 세상을 디자인한다는 하상장애인복지관. 2층 녹음실 입구에 붙여놓은 '당신의 목소리로 하루가 행복해집니다'라는 예쁜 표지를 외면할 수 없었는지 그때부터 주 1회 낭독봉사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누구나 다 그러하듯 나 역시 일마다 때마다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름 노력해 왔지 않은가. 이를테면 수영, 영어회화, 악기, 헬스클럽 등록과 같은 내게 유익한 작심도, 그뿐이라 성경일독과 같은 기특한 마음먹음도 흐지부지 문자 그대로 용두사미로 끝난 경험이 어디 한두 번이든가. 기껏해야 작심 서너 개월을 못 넘기곤 하는 나를 내가 얼마나 한스러워 했던가 말이다.

그러든 내가 낭독 자원봉사 작심 14년째를 거뜬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 타인이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감독하거나 근태를 체크하는 것도 아닌, 100% 자발적으로 오로지 나의, 나의 의 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녹음실 나가는 날을 기다리기까지 하니, 누가 뭐래도 내 스스로 나에게 감사패라도 증정하고프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자원봉사 기간 기록 경신의 끝이 언제일지... 내겐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문방사우가 있듯 녹음실에도 네 가지 벗이 있다. 물병과 연필 그리고 낭독 중 놓치고 싶지 않은 좋은 글귀라도 나오면 메모해두기 위한 메모지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일까? 마지막 한 가지 필수품이 있다. 답은 티슈다. 책을 읽다가 울컥하고 감동돼 흐르게 되는 눈

물을 어찌랴. 여지없는 NG! 이럴 때는 한 평 부스에서 잠시 나와 믹스 커피 한 잔을 타 마실 일이다.

하루 일과를 어찌 보냈는지 알려면 퇴근길 뒷모습, 귀갓길 발걸음을 보면 안다지 않는가.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들다 해도 오늘 내 책임 아래 처리했던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나설 수 있다면, 그런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낸 뒤 집으로 향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은 경쾌할 수밖에.

나의 집은 마을버스에서 내려 약 10분 정도 약간의 오르막 보도를 따라 걸어 올라가야 한다. 대개의 경우, 귀가할 때의 그 길은 어찌나 멀어 보이고 숨이 차는지 느릿느릿 무겁게 발걸음을 땔 때가 많다.

그러나 하상을 다녀오는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오르막길을 경쾌하게 오르고 있는 나를 보며 내 스스로 놀란다. 이런 하상 뒤끝의 작은 '기적'에 나 혼자 조용히 미소 짓곤 한다. ★



시간과 매듭

김하은

시선이 닿는 곳마다 푸르고, 맑고 알록달록하지만 그 틈새 어딘가엔 짝사랑함이 코끝을 스치는 계절. 단 한 장 만 남은 달력의 페이지를 바라보며 후회와 씁쓸함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이룬 게 없는 스스로를 자책을 하며 한 해를 매듭을 지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린 단지 모든 순간들을 기억을 못 할 뿐 다양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양분으로 훗날엔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시선과 함께 저의 이야기 세계로의 짧은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상에서 낭독봉사자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다 되어가는 저는 이곳을 모르기 전까지 저를 필요로 하는 곳도 없었고, 수없이 도전했지만 원하는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었고, 하루하루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과 함께 어둠 속에 갇혀 불안에 떨며 눈물과 함께 꽤 오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몸 전체가 먹구름을 머금은 듯 무기력한 채로 거의 4년이란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갇혀있었죠. 그래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선 이런 제 모습을 원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스스로가 살아갈 방법,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이 '하상'이었습니다. 앞서 낭독 봉사라는 말을 언급했듯 전 성우가 꿈인 지망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꾸었던 간절하고도 오랜 꿈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덕일까요? 그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하상'으로 인도해 주었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첫 봉사 당일 실제로 일을 해 본 적이 없던 지라 긴장도 하고,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자신감도 없었기에 녹음한 목소리에도 녹아들었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마음에 해가 뜬 지금은 예전보다 활기찬 소리를 내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정보와 감정을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평범한 일반인들 사이에 있다가 복지관에서 그간 삶을 살아가며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봉사활동을 통해 눈으로 보고 많이 느끼며 배웠습니다. 결국 우린 같고, 세상은 넓게 보고 서로를 보고 배우기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나이와 시간에 상관없이 스스로가 움직이고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세상을 배울 수 있더군요.

무수한 밤하늘의 별들이 이어져 별자리가 만들어지듯 우리 모두에게도 배움을 통해 길이 만들어지고 이어지며 완성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그때와 달리 그곳에서 빠져나온 지금은 작은 기회들을 잡으며 양분을 삼아 성장해가며 꽃봉오리가 살짝 맺힌 것 같아요. 이 꽃봉오리가 제가 한 해 동안 이룬 것이 많아서가 아닌 그간의 작은 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 힘들 때 그 계절마다 피는 꽃가지를 유심히 보는데, 그 안에서 먼저 활짝 핀 꽃이 있는가 하면 아직 봉오리 채로 있거나 혹은 슬슬 질 때쯤 나중에 활짝 피는 꽃도 있는 걸 자주 본답니다. 그런 부분은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죠. 사람의 인생도 같은 시기에 태어났어도 먼저 잘 된 사람 늦게 잘 된 사람이 있듯 결국 모든 생명은 좋은 시절이 피기 마련이더군요. 물론 저도 주변을 둘러보며 비교를 하며 조금해지거나 나이나 시간에 얽매어 자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을 한들 그들처럼 시기에 맞춰 똑같이 잘 될 순 없더라고요. 게다가 꽃은 피는 계절이 정해져있지만 사람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기에 우리 모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녹지 않는 추운 겨울,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았던 분들에게 감히 제가 그 아픔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괜찮다는 응원과 함께 위로가 닿기를 바라며, 모두 각자만의 시기를 만나 멋진 꽃을 피워 삶을 가꾸어갈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여전히도 잘 반갑게 맞아주시며,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복지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글에 담아 전합니다. 제 진심이 전달되었길 바라면서 제 글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힐링 핫 플레이스 하상

김형태

매월 마지막 췌 주 수요일은 나눔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방전된 에너지를 최상으로 끌어올려 주는 힐링 핫 플레이스 하상으로 갑니다. 4주에 한 번꼴로 방문하고 비록 4시간을 나눔 하지만 제가 받은 긍정 에너지는 4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눔과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 크게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곳에서 받은 큰 긍정 에너지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닥이겠거니 했지만 지하가 더 있을 정도로 힘든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병마와의 힘든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우울감과 무력감 속에서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어요. 저는 영업사원인데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엇나간 삶의 방향성은 제자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은평천사원과 충현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결혼과 함께 봉사활동은 데면데면 해졌고 그렇게 나눔과 사랑의 실천 대신 사랑과 나눔(이익)을 갈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봉사활동은 삶의 낙이었고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나눔 활동의 공백기와 저의 암흑기는 정확히 일치했고 최악의 최악인 상황을 이겨냈지만 쉽사리 수면 위로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제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지인이 다시 한번 나눔 활동을 함께 해보자고 했어요. 뭐라도 해야 했던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어색하지 않을까? 한 걱정이 무색하게도 현장에서의 저

는 제가 봐도 활기차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톤 올라간 상기된 목소리와 열심히 하고픈 몸짓들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려주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때부터 저에게도 별 들 날이 다가오더군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눔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야 살 수 있구나 란 것어요. 저의 밝은 에너지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리실 선생님들과 신뢰감 형성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전 하상에서의 나눔 시간 대부분을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특히 제가 맡은 파트는 밥을 퍼드리는 것입니다.

첫 밥주걱을 푸기 전 어떻게 하면 식당 이용자분들께 편하게 다가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인사를 잘 하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를 연달아 합니다. 직원분들은 연신 신기한 듯 쳐다보십니다. 아마도 크게 인사하며 밥 퍼주는 덩치 큰 봉사자는 처음 보신 듯 한 얼굴들이었어요. 지금은 모든 직원분들이 좋아해 주십니다. 이용자들께서도 좋아하세요. 제가 즐겁고 힘이 되니 크게 인사하는 겁니다. 물론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아직 뵈지 못했습니다.

평일에 나눔 활동을 하기가 녹록지 않기에 한 달에 한 번뿐인 나눔 활동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열과 성을 다합니다. 비록 작은 손길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적은 노동 대비 너무나도 큰 기쁨을 얻어 가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나눔 활동의 재개는 저에게 있어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밑알이 되고 싶네요. 그 첫발을 내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이름으로

박민희

작년 11월 딱 이맘때 즈음에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실습을 하기 위해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아주 편안했고 제가 상황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간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꼼꼼하게 체크하셨습니다. 이용자와 매칭을 위해 복지관에서 미팅을 진행하였고 저는 세 번의 만남 끝에 지금의 이용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두 아이를 양육하느라 경력이 단절되었고 어느 정도 아이들을 키우고 나니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저의 아이들도 제 손길을 여전히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온종일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고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일을 하고 있던 지인의 추천으로 먼저 이론 수업을 일주일가량 듣고 난 후 실습처를 찾아 하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집 근처에 복지관이 있어 큰 부담 없이 편하게 방문하였고 복지관 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게 맞아 주셔서 긴장된 마음을 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발달장애와 자폐증이 있는 8살 여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만 돌을 키웠던 저는 딸을 키우는 마음으로 매일 그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웃는 것도 너무 예쁘고 푹푹푹한 눈으로 선생님! 선생님 하며 따르는 아이 덕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때로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날씨가 궂을 때는 힘든 상황도 있지만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실습시간을 채워야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자 나름의 책임감도 생겼고 아이에게 좋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출근하여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하상장애인복지관 외에도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기관이 꽤 있습니다. 근처 어린이 도서관, 모모놀이방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품앗이 놀이방),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 양재천 등지에서 아이와 저의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뜻하지 않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면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에서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과 남편이 제 직장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도 복지관 선생님께서 직접 알아봐 주시고 서류 접수도 대신해 주셔서 너무 편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활동 일지를 작성하려 갈 때도 반갑게 맞아 주시고, 불편 사항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는 선생님들 덕에 복지관 방문 때마다 소속감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 움츠러들기 쉬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도 생겨서 관련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감사함을 전하며 오늘도 씩씩하게 복지관 옆을 아이와 함께 지나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저의 시간에 무한한 신뢰와 배려로 함께해주신 아이의 부모님께도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올바른 복지의 손길, 활동지원

박상준

정말 우연한 기회로 활동지원사로 일하게 되면서 세 곳의 센터를 거쳐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좋은 인연과 연결해 주신 손우석사회복지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좋은 기관을 유지해 주신 여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 짧은 배경을 설명하면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친할머니께서 중풍으로 누워서 생활하시고 친할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케어를 했으니까요. 그 시절엔 이런 제도조차 없었는데 새삼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의 손길이 올바른 곳에 늘어나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학창 시절 조부모님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저에겐 자연스레 외상환자분들의 힘든 부분과 신변처리, 욕창 케어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용변 처리 시 거리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 친아버지 또한 젊은 시절 회사 생활로 과로와 당뇨로 신장투석을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말이 저에겐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 도움을 드리는 이용자 아버님은 제 아버지와 나이차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관이 저희 조부모님, 부모님과 너무 흡사하셔서 부모처럼 생각하고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3월에 연락을 받고 이용자 아버님 집에 방문했을 때 힘들거나 두려움 혹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보다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용자 보호자 분과 가족이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만약 나에게 기회가 된다면 어머니(보호자)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아버님이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같이 일하게 되었고 지금 11월이 된 지금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 식사지원 및 신변처리, 재활운동과 체위 변경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활동하시는 이용자님은 머리 빼고 사지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 분이 저의 안위나 시간을 할애해서 젊은 나이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보살핌을 받아야 할 분이 저를 더 생각해 주고 말씀해 주니 저 또한 일이라는 접근보다 이제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엔 항상 주변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만히 있으면 심심할 수 있으니 TV나 신문 등 시사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화려했던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그렇게 멋지게 살아오고 악착같이 사셨는데 그래서일까 시간 약속을 항상 철저히 지키시고, 말에 책임을 지고, 매일 재활훈련도 거르시지 않고 특히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을 하십니다. 그런 마인드와 태도는 나태함이 있던 저에게 큰 반성과 울림을 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지금에 상황에 안주하지 않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어머니의 무한한 헌신과 사랑은 모든 이들이 알고 감명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로 옮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들면 한 번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를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딱 한 발자국 딱 한 번의 손짓과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같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도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삶을 영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지만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의 생각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기도와 노력하고 있으니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힘내시길 바라며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버님 건강이 조금 악화가 되어 병원에 잠시 입원하여 검진받는 중입니다. 저 역시 병원으로 나와 시간이 닿는 대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또한 잘 이겨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짧은 시간 기도해 주시면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외상환자가족과 중증질환 장애인분들에겐 활동지원 사업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범위와 시간을 타인과 고통을 나눔으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와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와 매칭으로 한 분이라도 더 삶에 짐을 나눌 수 있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



항상 큰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

박아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반짝반짝 빛나던 20대에 하상에 입사하여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다. 글쓰기 기회를 통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의 하상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분명 힘들었던 순간과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들만이 먼저 떠올랐다. 10년간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복지관에서 점역사로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점자·전자 교재와 자료들을 교열하고 점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본 책을 절단하여 스캔을 하고, 스캔이 된 자료를 1차로 자원봉사자가 교열을 하고, 2차로 점역사가 교열 및 점역을 하여 의뢰 요청에 따라 전자 도서나 점자 도서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이때 책을 정확하고 빠르게 만들어 시각장애인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낯을 가리는 탓에 처음 자원봉사자 담당을 맡았을 때는 조금 힘이 들었다. 그저 자원봉사담당 매뉴얼대로 전자·점자 대체자료 제작 지침대로 자원봉사자에게 입력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을 하고, 딱딱하고 어색하게 도서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나누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봉사활동을 하러 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만나면서 어느덧 나는 자원봉사자분들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입력 봉사를 하는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워요. 독서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유형에 도서만 고집해서 보게 되는데, 입력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도서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대학 전공 서적, 공무원, 사회복지사 수험서 등 이런 봉사활동이 아니면 내가 이런 다양한 도서들을 접할 수 없지. 시각장애인에게 나의 활동이 도움이 되어서도 너무 기쁘지만, 책을 통해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아요. 선생님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봉사자들에게도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예요.”

“봉사활동을 올 때마다 선생님이 어떤 도서를 줄지 기대가 돼요. 어려운 도서가 아닐까 걱정이 되면서도 새로운 도서를 받을 때는 설렘이 있어요. 저의 봉사활동이 선생님에게도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니 보람이 느껴져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도서 교열을 하면 선생님께 더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이 점역을 빨리하셔야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도서가 빨리 보급되잖아요? 선생님이 점역하시기에 편한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할게요.”

“선생님! 급할 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나는 집도 가까우니까 선생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올게요.”

이렇게 나의 일을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고, 좋은 일을 한다며 응원을 해주는 봉사자분들 덕분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큰 힘을 얻었다.

입력 봉사활동을 하시는 봉사자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70살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내가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오랜 기간 꾸준히 입력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이분들은 나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시기도 한다. 또한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기도하시고, 마음이 지쳐있을 때 큰 위로도 해주신다. 아들 둘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나를 기특하다 칭찬해주시고,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것이 보통 일인 아닌데, 잘하고 있다며 매번 응원의 말도 빼놓지 않고 해주셨다.

10년을 같은 일을 하다 보니,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이어서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자원봉사 담당을 맡고, 봉사자분들과 인연을 맺어가면서 봉사자분들의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고,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10여 년간 일을 하면서 쏟아 냈던 에너지와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봉사자분들을 통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도 일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봉사자분들이 보내주셨던 격려와 응원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봉사자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



나의 두 번의 하상 이야기

변다혜

하상과의 첫 만남은 대학생으로서의 나의 첫 대외활동이었다. 지난 2021년, 대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대학교 입학 후 고등학교 3년 여간 준비해왔던 나의 꿈이 나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대외활동을 찾던 나는 과외를 하며 쌓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상의 ‘찾아가는 공부방’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면접을 볼 기회를 얻었다.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지만, 사실 당시에는 면접에 붙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면접 때 ‘시각장애인에게 노란색을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머리가 하얘져서 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다. 면접에 숙달된 현재로서는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았겠지만, 당시 대외활동 새내기였던 나는 지금 듣기에는 다소 민망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의 면접은 ‘앞으로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경험으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면접관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나의 잠재력을 좋게 평가해 주신 건지, 나는 최종 합격하여 1년 여간 학생과 1주일에 두 시간씩 함께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학생과 관련한 모든 것에 그저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내가 줌으로 회의실을 만들면 학생이 알아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학생과 수업은 어떤 교재로 해야 하는 것인지 등, 그때 당시에는 무지하게도 나의 세상과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의 세상이 사뭇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세상이 다를 것이라고 잠시나마 생각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학생은 나와 비슷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이다. 내가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서 척척 알려주어 멘토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었던 학생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과의 멘토링이 쪽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학생과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 학생이 올해로 스무 살이 되었는데, 만약 이 글을 본다면, 그때 미숙했던 나와 함께해 주어서 고마웠고, 같이 파스타 먹기로 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꼭 지키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하상과의 두 번째 만남은 대학생으로서의 나의 마지막 대외활동이 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공부방’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하상과의 인연은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대학교 4학년이 된 올해 7월, 다음 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나는 취업 준비 전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어 했던 낭독 봉사를 하기로 결심했었다. 나는 낭독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물색했고, 그렇게 롯데홈쇼핑과 한국장애인 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하상장애인 복지관이 참여하는 ‘드림보이스 서포터즈’라는 낭독봉사단 모집 공고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낭독 봉사는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던 하지만, 그래도 이미 나와 한 번 함께 했던 하상이 참여하는 활동 이라니... 공고문을 보자마자 ‘이건 내 거야’ 마음을 굳혔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나는 공고에 지원했고, 합격하여 낭독 교육을 시작으로 내가 배정받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도서의 낭독 녹음을 위해 꾸준히 하상을 찾고 있다. ‘찾아가는 공부방’ 프로그램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멘토링은 물론 발대식, 수료식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하상에 한 번도 직접 방문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는데, 이번 활동을 하며 하상에 자주 가게 될 것 같다. 비록 내가 생각했던 목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드림보이스 활동으로 하상에 정말 원 없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스운 상상을 하고는 한다. 바로 사흘 전에 하상에서 4시간 동안 녹음을 했고, 당일 사흘 뒤에도 5시간의 녹음이 예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지만, 아무쪼록 내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내가 낭독하는 책이

하상을 비롯한 많은 복지관의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하상에서의 ‘찾아가는 공부방’ 멘토링을 시작으로, 나는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주제로 교내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두 학기 동안 교내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장애학우들의 강의 대필 자원봉사를 했으며, ‘할리우드 영화의 문제적 장애 재현’, ‘특수교육학개론’ 등의 장애 관련 학부 강의를 수강했고, 하상이 참여하는 ‘드림보이스 서포터즈’의 낭독봉사를 마지막으로 대학생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내 주변인들이 내가 장애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내가 원래부터 장애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건지, 하상에서의 ‘찾아가는 공부방’ 프로그램 참여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인지, 어쩌면 둘 다인 것인지. 분명한 답을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도 장애 인권 개선에 관심이 있고, 내가 사회인이 된 후에도 장애 인권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는 언젠가 세 번째 하상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하상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우스운 상상을 하며 글을 마친다. ★



받은 게 더 많았던 시간

송지윤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처음 마주한 곳은 사회복지 취업 사이트였습니다. 뭐 하나 안정적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이었던 저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문구 하나에 덩석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학습 멘토링 봉사활동에 지원했던 것이었죠. 화상면접에서는 멘토링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지만, 실은 활동비에 온 신경이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답이 제 마음에 오래 박혔습니다. 면접 후반에 사회복지사님은 “시각장애학생을 멘토링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듣기 좋은 표현으로 대답을 채워나가기 급급했습니다. 모든 대답을 들은 후 사회복지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수다쟁이가 되어야 해요.” 순간 활동비만 생각한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학습 멘토링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며, 진정한 존중은 타인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일깨워줬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가르침과 더불어 매주 진행된 수업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었습니다. 멘티 핵심이 영어를 즐겨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준비한 시간도 재미있었고, 매주 숙제로 나간 영단어를 꼼꼼히 외워 온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보람찼고, 영어 표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신났습니다. 그렇지만 24주 모든 수업이 늘 설렘이라면 거짓말이겠지요. 서류 탈락한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8시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에 찌날 등 무기력과 지침에 압도되어 수업을 피하고 싶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수업 직전까지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수업을 마친 후에는 뭉든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났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매주 그러했습니다. 밤 9시 30분에 수업을 마친 후 자주 산책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취업 준비생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무력함에 빠질 때인데,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불 밖으로 몸을 움직여야만 했던 저는 덕분에 건강하게 취업 준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되돌아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함과 귀찮음에 사로잡힌 날들이 이어질 때, 멘티 학생의 열심에 자극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봉사한다는 사실에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며 무력함을 덮고 남을 만큼의 용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저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멘토링 봉사활동의 최대 수혜자라고 자부할 만큼, 받은 게 더 많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진심으로 멘티 학생과의 수업이 저에게는 2023년을 버티게 해준 기둥이었습니다. ★



중동고 봉사동아리 인터렉트

양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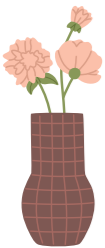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1365로 봉사해왔었습니다. 물론 이 봉사는 제가 원해서가 아닌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채워 오라고 시킨 학교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헌신하여 남을 도우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도우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빨리 끝내고 집 가서 쉬어야 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앞섰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는 제가 남들을 도와주며 살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하다가, 동아리 때 라도 봉사하자는 마음에 의료봉사 동아리인 RCY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RCY에서 밖에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보조해 주고 도움을 줄 줄 알았지만 여기서도 피켓 만들기, 설문조사 하기 등 옛날 중학교 때의 봉사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2학년에는 봉사 동아리 인터렉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터렉트에서는 6월부터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가서 설문조사를 통해 간식을 나누어 드린 다거나, 퀴즈를 통해 생필품을 드린 다거나, 학교에서 병뚜껑을 모으는 활동을 하는 등 직접 행동으로 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생각했던 참된 봉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애인 인식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복지관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중동고 인터렉트’라는 이름으로 참석하여 샌드위치, 빵 등 먹을 것들도 팔고 노래도 하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지관과 함께 한 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일 동안 진행된 사회봉사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 봉사는 지금까지의 봉사들과는 힘듦의 강도가 매우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청소하고 점심에는 배식, 설거지 또 청소. 총 6시간의 봉사는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본 봉사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과 함께 하는 설거지, 처음

에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에 협동이 잘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란 것은 남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도 되돌아보며 함께 어울리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함께 설거지를 하니 한편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이곳에서의 밥도 맛있었고 강제로 끌려온 사회봉사라는 느낌과 달리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봉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봉사하는 자율로 제가 자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물론 함께 봉사를 하는 곳도 맞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봉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봉사를 통해 제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저도 도움, 배움을 받은 거 같아 매우 감사합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봉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 정신을 갖고 오직 봉사 기간,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평생시에도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은총과 축복의 서른 하상

원용삼

요즈음 같은 백세시대에 건강 무탈하게 30년을 함께한 저는 하상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감사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었습니다.

회고하건대, 한국 동시작가 피델리스 형제의 소개로 1993년 5월 8일 하상장애인복지관 2층 녹음실에 첫발을 디딘 후 2023년 11월10일까지 서른 해를 홀로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 앉아 사랑하는 애인을 향한 이야기를 속삭이듯 낭독하는 어느 사나이를 연상하시면 해피하실 것입니다.

그 애인이 곧 국내외에 게시는 이야기 청(廳)·시각장애인이시라면 수궁이 가실 것입니다. 체온이 담긴 손을 맞잡지는 못하지만 속삭이는 그는 벌써 상강(霜降:서리내림)의 망구(望九)라면 더 놀라시겠지요.

방송국 성우 수준은 못돼도 교육 방송이나 문화 방송 아나운서 선생님의 낭독 지도와 노하우를 전수받아 제25차 낭독 봉사자 과정을 수료하고, 해마다 낭독 연수 교육을 통해, 자신의 고백도 개선하고, 또 수련, 탁마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만도 제게는 정말 뜻깊은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누구 위해 봉사를 하시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체 없이 누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발전과 끊임없는 도전이며 저를 위한 공부였다고 선뜻 답할 수 있습니다.

낭독자 교육 및 연수에서 배웠듯이 ‘깊은숨쉬기(호흡)’위해서 스스로 새벽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했고, “역양, 고저장단, 포스(띠움)”낭독 법을 노래와 읽기 연습과 함께 익혔으며, 녹음 일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두 시간 이상의 거리를 다니며 시간보다 일찍 복지관에 도착하는 노력이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 덕목이 되었습니다.

세월 속에 만남과 떠남의 예전 봉사자분들, 텔런트, 배우, 체육인, 유명인도 이곳을 많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COVID-19) 이후는 격조함을 보

이고 있음도 다소는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물이 들어오면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일 것인데, 숨이 막히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기다리는 생명체의 삶은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사막화가 되도록 방치해야 할까요? 다시 살려내야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감미로운 소리의 들음이 무한한 행복”이라고 장애인과 대화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상에서 60분 양면테이프, MP3 및 CD 저장 녹음 매체로 제가 만든 6060개 파일 하나하나가 멀리멀리 전파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치 자식을 키워서 넓은 세상에 보내는 듯 뿌듯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한 것뿐이었는데 2003년 12월 6일 에는 감사패를 받았고, 2016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복지상(자원봉사자 분야) 우수상을 받은 것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의뢰자가 10여 년 전에 부탁한 <인체의 경락도>를 녹음을 못해드린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능한 풀이를 해서 꼭 녹음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그때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할 일은 많습니다. 미력하나마 제 목소리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의 체력과 의지를 불태우며 계속 녹음 봉사 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녹음 봉사자님, 도와주시는 모든 관계자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신 복지관 민혜경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서른 살의 하상이, 앞으로 쉰 살, 또 백 살이 되고 그 이상 오래오래 장애인들의 복지와 도움의 큰 지표가 되시길 바라며 올해 서른 살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축복과 영원한 발전을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멘토와 멘티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친구

윤태양

저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시각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업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서로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같은 하늘 아래 각자의 꿈을 품고 산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첫 수업을 하기 이전에, 학업 멘토링 OT에 참여하면서 조금 두려웠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및 수업 시 유의사항을 들으면서 저의 언행이 멘티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수업 이후, 저의 불안함을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가르친 두 학생 모두 비장애인 학생들과 다름없는 고등학생이었고, 똑같이 대학교 입학에 걱정하며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멘티들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멘토와 멘티가 협력적 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년간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멘티들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피로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멘토링 수업을 통해 멘티들로부터 힘을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였고, 1주일 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면서 해답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지친 수험생활 속에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 멘토로서 멘티들에게 일방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성장하는 수평적인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 학생 모두 각

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아버지께서는 2013년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곁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장애인의 취업이 제한적이고 문턱이 높을 수 있어도, 신체적인 한계를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이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수업했던 두 학생 모두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전공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꿈에 관한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노력이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 각자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두 학생이 올해 모두 대학교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활동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분들께도 부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모든 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별보다 빛나는 아이

이경선

2014년 조기교육실에서 처음 만난 반짝반짝 빛나는 두 살배기 아이. 반짝반짝 빛나는 만큼 무서운 것이 많아서 항상 울음과 함께였던 아이는 또래 아이들이 흔히 부르는 보로로 노래에도 반응이 없고 색칠놀이, 한글놀이, 신체놀이, 율동놀이 등 모든 활동을 거부했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마음에 들지 않는 활동을 제시하면 바닥에 앉은 자세 그대로 몸을 받을 접은 채로 일어서지 않아 애를 먹었었다.

공부도 공부지만 식사 시간에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 법도 잘 모르고, 편식도 심한데 아이의 어머니는 식사 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바르게 지도해 주기를 당부하셔서 식사 시간마다 아이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먹는 음식으로 아이와 이렇게까지 다투어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 또 어느 날은 식사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거나 먹지 않던 채소 반찬을 먹기라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감정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편식하던 반찬을 먹는 날에는 꼭 동영상을 촬영하여 어머니께 전송하여 드리고는 했는데, 1~2년 전에 우연히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아이가 세 살이었을 때의 동영상을 발견하고 어릴 때 모습을 다시 보니 꼭 나의 친딸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괜스레 눈물이 핑 돌기도 하였다.

조기교육실에서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어렵던 아이가 친구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기도 하고, 대소변 가리기가 되지 않아 기저귀 떼는 것도 어렵던 아이가 기저귀를 뺐을 때는 아이의 어머니와 함께 두 손을 맞잡고 기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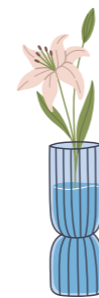
다섯 살쯤 됐을 때에는 인지 학습 기능도 많이 향상되어 색연필도 안 쥐던 아이가 그림 안에 색칠을 하고, 숫자를 세고, 물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찾기도 하며 기특하게 성장하였다.

여덟 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이는 조

기교육실을 졸업하고 초등 그룹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하였다. 1학년이 되어도 간단한 단어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많이 성장한 인지에 비하여 언어 영역이 더딘 발달을 보여 많이 속이 상하기도 하였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초등학교생활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그룹 프로그램이 종종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아이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까 염려하였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기대만큼 바르게 자랐다. 단어로만 표현하여 걱정을 하게 하던 것도 잊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유창하게 문장으로 대화를 하는 아이를 보며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023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빛나는 우리 아이. 앞으로도 더욱 반짝이는 시간들이 이 아이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



몽치는 마을, 함께하는 하상

- 코로나 시대의 마을축제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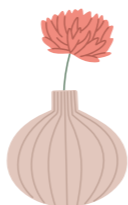
이상엽

2019년 마을축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로 진행하면서 기존 복지관 내에서만 이뤄졌던 행사를 복지관을 둘러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남녀노소 어울리면서 함께 즐기는 축제를 기획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특성상 항상 복지관을 내관하시는 장애인 이용자분들을 위한 제공 서비스 개념의 행사만 진행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이용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던 과정에서 최초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지원해 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나아가서는 그들이 행복하려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행복해야 그들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장애인을 둘러싼 가족들만 행복해서는 살아가는데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고민을 통해 결국 그 장애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주민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019년 마을축제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축제를 진행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방법도 기존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모두 준비하고 진행하여 제공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기획해서 진행도 함께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운 마을축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이용자들은 양보와 배려를 배우고, 비장애인 주민들은 섞여서 즐기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멋진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2020년 축제에는 좀 더 발전된 축제를 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어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복지관들도 두려움에 선뜻 사업들을 기존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잘 마련되었던 마을축제를 이대로 포기하고 못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 적응의 동물인 사람들은 조금씩 대면에서 비대면 사회로 시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실패를 목표로 비대면 마을축제를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함께할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여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첫 번째 비대면 마을축제를 여름에 생방송 라이브 방송으로 네이버밴드 앱을 통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마을축제 일명 “하상 온 마을축제”는 단비 같은 즐거움을 주는 축제가 된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목표로 한 발짝 나아갔더니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지역 내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함께 연합하여 더욱더 멋진 비대면 마을축제 “몽쳐야 일원2동”축제 줄임말로 “몽일2”축제를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복지관과 주민센터는 장소와 기타 기획지원 등을 통하여 더욱더 확장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야 한다는 축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코너와 엄마 아빠를 위한 음식 만들기 코너,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동네 공원 소개와 방구석 음악 콘서트까지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장점을 살려 온 가족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코너까지 정말 알차게 기획되어 성황리에 라이브 방송 및 녹화방송으로 멋지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 마을이 모여 공동체성을 멈추지 않고 즐거운 마을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사례가 인정을 받아 구청에서 연말 사례 발표도 진행하게 되었고, 구청장 표창까지 받게 되는 영광

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대한민국인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것 또한 마을이 뭉쳐서 해결해 내는 멋진 사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참여한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제가 속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관계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열심히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사랑, 기쁨, 행복의 하상장애인복지관

이옥자

인생아! 살아가는 대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이 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이리 궁리 저리 궁리하다가 복지관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제일 먼저 반겨 주는 사람은 천사 같은 성인 지적장애인들, 주방 봉사자입니다.

사랑으로 맞이해 주고 기쁨으로 인사하는 복지관 식구들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엊그제 문을 연 것 같은데 어느덧 삼십 년? 서로 서로 눈으로 인사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곤 한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나날 그 무엇에 비할까요?

요즘은 건강관리와 건강플러스라는 단체에 들어가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강서구에 있는 서울 식물원에도 다녀오고 다음 주에는 서울 숲에도 간다고 한답니다. 우리 노인들은 혼자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곳을 복지관이 있어 데리고 다니니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노인들 한사람 한사람 모시고 다니니 너무나 행복하고 재삼 감사합니다.

이것뿐이 아니랍니다. 정월에도 재미있는 행사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40대 중반에 동작구 흑석동에서 개포동으로 이사 온 지 30년이 훌쩍 지나 70대 후반 80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 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에 왔는데 출가해서 손자, 손녀가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른 건가요? 아니면 세월이 흐른 건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세월아!

강산이 세 번이 변해서 반짝반짝했던 얼굴은 조금쪼글해지고 이제는 장애도 있습니다.

양쪽 발목에는 철심을 넣어 조금 걸으면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프답니다. 5년 전에는 허리에도 철심을 넣었습니다. 가는 세월이 아쉽습니다.

지난봄에는 포천에 있는 하늘 다리와 한탄강에 다녀왔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매년 바자회도 열어 주민들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며 사랑으로 먹거리로 맞이해 준답니다.

2023년 11월 13일에도 서울숲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눈에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치료도 해준답니다. 허명환관장님 이하 복지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한 일도 많고 도와주신 것들도 많은데...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을 빼먹으면 서운하겠지요? 매일매일 맛있는 식단을 짜서 맛난 식사를 해주시는 영양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추우나 더우나 매일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웃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영양사 선생님!

설문조사를 재미있게 끝내고 11월 10일에 성남아트홀에 가서 음악 악기 이야기를 듣고 옛날 악기 벤조라는 악기가 미국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에 흥얼거리며 놀던 벤조 조그마한 악기를 처음 접하게 되니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11월 13일에는 성동구에 있는 서울 숲에 가서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내년에는 더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가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 파이팅! 노인들을 한사람 한사람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자식들도 외면하는 시대에 복지관 선생님께서는 웃으면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

서른의 하상, 그리고 마흔 넘어 알게 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이윤경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알게 된 건 내 나이 마흔이 한참 지난 3-4년 전이다.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된 2020년 5월에 나는 우연한 기회로 ‘점자 기초반’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시작은 그랬다: ‘영어 번역하듯 나중에 나이 들어 봉사한다면 점자책 만드는 일을 도우면 좋겠네. 나 정도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참 멋진 강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대학원에서 사학을 전공 중이라는 강사님은 Covid-19로 인해 강의가 거의 없던 중에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 기초반” 수업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 참 다행이라며 자신을 소개하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점자를 시각장애인 선생님을 통해 배우다니! 신선했네~ 난 참 운이 좋군!’

운은 좋았으나, 5회에 걸친 수업의 과정은 회를 거듭할수록 나의 지적 시각에 프리즘이라도 가져다 놓은 듯 다양한 각도로 도전받는 과정이었다. 수업을 통해 실제 점자가 상당히 어려운 문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전맹(全盲)의 사학도 선생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조금씩 뜨게 되었다.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우리의 인식은 과연 눈을 뜨고 있는 것일까?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점자 기초반’의 취지는 바로 그것이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주로 점자 교육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개설했던 수업인데, 그 대상을 일반 주민에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그런 수업도 의미 있지만), 원칙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일상적 감각의 틀을 깨기란 쉽지 않다. 시각장애인 선생의 시선으로 점자의 세계를 안내하고 이와 연결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수업을 통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 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배열이 바뀐 충격만큼이나 이 수업이 준 인식의 균열은 상당했다.

우선 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개념도 잘 알지 못했다. 배리어 프리란, ‘장벽 없는 건축 설계’를 말하는 건축학적 용어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이었지만, 현재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배리어 프리를 적용한 시설이 제법 많아 보이고, 장애인의 삶을 돌보는 기술적인 진보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수업마다 강사님은 장애인 시각에서 바라본 아쉬운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었는데, 그 단편적인 사례만으로도 우리의 장애인식 현주소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수많은 캔 음료가 점자로는 단지 “음료, 탄산, 맥주”로만 구분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시각장애인에게 콜라나 사이다는 모두 똑같은 탄산음료로만 읽힌다. 눈을 감고 만져보면 캔 음료임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선택하는 다양한 음료의 종류를 이들은 마신 후에야 알 수 있다.

둘째, KT가 진행했던 ‘마음을 담다’는 캠페인 광고를 예로 들었다. 지능(AI) 기술이 청각 장애인 김소희 씨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내용을 담은 본 캠페인을 접했을 때, 나는 엄청나게 감동하여 선한 기술의 진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런 기술을 구현한 팀의 노력과 의지도 따뜻한 기술을 소개할 마음인 것은 분명했다. 강사님이 이 광고를 언급한 이유는 광고가 자칫 수어는 마음을 담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기술 인문학의 핵심은 ‘기술이 차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야지 기술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생각해야 할까? 그렇다. 따뜻한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것이 캠페인에 담긴 뜻이었다면, 광고에 수어로 대화하는 가족의 모습이 담겼더라면 어땠을까?

코로나로 인해 5회 차 수업이 모두 대면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나머지 2강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아쉬운 마음에 선생님께 수업 종료 후 한 번 더 만나 뵙기를 요청했다. 하상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선생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사님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수업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다. 강사님은 학생들에게 영화 ‘어벤저스’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어벤저스’ 구성원 중에 가장 심각한 장애가 있는 멤버가 누구일까?라고 말이다.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가? ‘내 아이들이 나랑 닮았다고 놀리던 ‘헐크’가 분노 장애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다시 생각해 보니, 가장 메인 캐릭터인 아이언맨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다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강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장애인 히어로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그는 미국 최고의 천재 외과 의사였으나 사고로 손을 다쳐 더는 의사 생활을 할 수 없어 절망에 빠진다. 이후 스승 ‘에인션트 원’을 만나 자신의 신체적 장애는 살아가기에 큰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관점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니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철학적 가르침이 새롭기만 하다.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다움’을 이야기하며 돌봄 경제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법론을 논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엄밀히 말해 우리도 살면서 예상치 않은 순간에 장애를 겪거나, 겪은 채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존재다. 내지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듯 보여도 서로의 돌봄이 부족한 정글 같은 현대사회에서 마음의 장애를 겪는 이가 나는 아니라고 어찌 확신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의존해야 하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면, 우리 옆에 함께 하는 장애인 또한 다를 바 없다. 동반자의 시각, 그 눈높이를 통해 세상을 달리 보는 배리어프리한 세상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

나와 하상장애인복지관

이인순

하상과의 추억을 말하자면 아직도 생생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향하던 서울역. 그때는 살던 곳에서 면접 시간에 늦지 않게 가려면 새벽에 출발하는 무궁화호를 4시간 타고 가야 했다. 낮선 도시, 무서운 지하철역, 대청역에 도착하여 수서경찰서와 석탑을 지나 복지관을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해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하상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어봤었다. 지나가던 행인은 여기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딱 마주한 하상장애인복지관 건물. 처음 마주한 하상장애인복지관과 면접 질문들, 다시 무궁화호를 타고 나의 고향으로 향하던 노을이 지는 창밖 풍경. 집에 도착할 때쯤 걸려온 기다리던 합격 전화.

사실 그때는 서울도 잘 모르고 자취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살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직장을 다녀야 하나 고민도 했었다. 그리고 그때는 직장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자취방도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여서 맨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서울 월세방 계약은 2년마다 진행되었고 계약 시점이 될 때면 내려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다. 그러다가 직장도 적응하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고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즐기게 되니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교에서 담당 교수님과 마지막 상담을 진행했을 때까지도 나는 내가 무슨 치료가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다. 3학년 때부터 우연히 동기들, 선배들을 따라 남산 기독교 종합복지관에 장애 아동들과 주말에 나들이를 가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였고 평생 봉사활동만 하며 살고 싶을 정도로 빠져있었다. 아직 꿈이 정해지지 않은 나는 교수님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니 교수님께서 “그럼 복지

관에서 일하는 치료사가 되면 되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한마디가 되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처음 입사할 때는 교육치료팀이었다. 두 번째 팀은 가족문화지원팀이었고 지금은 지역사회연대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치료사는 어떤 치료사일까. 교수님은 왜 복지관에서 일하는 치료사가 되라고 하셨을까. 아직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함을 갖고 살고 있다. 동기들 중에 복지관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한다. 아직도 신기해한다. 나는 사실 동기들의 도전이 더 부럽고 용기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직장을 옮기는 용기 대신 새로운 치료사업을 시작하고 복지관의 치료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찾아가는 쪽으로 용기를 내고 있다.

아직 나는 미약하고 소심하고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입사 때부터 “열정”밖에 없다. 나는 아직도 그 열정에 매달리고 있으며 언제까지 열정 있는 사람일지 걱정도 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이런 미약하고 나약한 나를 믿고 늘 새로운 용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정의로운 것을 원하고 불합리한 것을 싫어한다. 예전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에 제일 먼저 앞장섰을 거다. 나는 나 자신이 쉽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주어진 길이 지금보다 더 험난할지도 모른다. 용기를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는 하상장애인복지관. ★

육지 속의 섬, 남이섬에 가다

이주화

복지관 게시판에 코로나19로 중단되다시피 한 여행이 다시 시작된다는 방(榜)이 붙었다. 서둘러 신청을 했지만, ‘마감일까지 신청을 한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가슴을 졸이는 기다림 끝에 나를 포함 5명의 이용자가 최종 선발되었다. 3~4회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어디를 언제 갈 것인지,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의 시간을 함께했다. 드디어 이용자 5명, 복지사 2명이 함께 하는 작은 행복여행이 시작되었다.

버거운 일상에서 벗어나 떠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파란 하늘, 투명한 햇빛, 피부에 스치는 상큼한 바람! 여행하기 딱 좋은 날! 가을 여행을 떠나는 모두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귀에 걸렸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남이섬!

30여 년 전, 고등학생 때 소풍을 다녀온 후로 처음 가는 것이라 그런지 마음이 설렌다. 물안개를 피우며 유유히 흐르는 강과, 단풍으로 물든 산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을 벗어나 동쪽으로 63km를 달려 청평 호수 위에 떠있는 육지 속의 섬, 남이섬을 만났다. 아쉽게도 30여 년 전의 한적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차장이 따로 있지만 많은 차들로 인해 주차가 어려울 정도였다. 인산인해,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진다. 여행의 백미인 배를 타고-3~5분 정도-섬에 내려 미니 열차를 타고 남이섬의 중심부에 내렸다. 지금 남이섬은 자신만의 빛과 색으로 한창 불타고 있다. 바스락 소리를 내며, 밝히는 낙엽을 하늘을 향해 던지며 어린아이처럼 깔깔 웃기도 하면서 낙엽이 들려주는 가을 이야기를 듣는다. 부는 바람에 후드득 흩어져 날리는 낙엽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수(憂愁)에 잠기게 한다. 우리는 서서히 온몸으로 남이섬이 펼치는 가을 향연에 흠뻑 빠져 들었고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이곳저곳에서 선한

웃음을 날리며 다양한 포즈로 인증샷을 남기기에 바쁘다. 깊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새 살이 돌아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

소고기 국밥에 막걸리 한 잔으로 주린 배를 채우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 「겨울연가」촬영지에서 몇 장의 사진을 찍으며 또 한바탕의 웃음이 쏟아진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은은한 커피 향을 음미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정겹게 나누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간 모양이다. 하하 호호 웃으며 속살 거리는 재미가 무척 쏠쏠해 아쉬움이 남지만, 자리를 정리했다.

어느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차에 몸을 싣고, 질끈 눈을 감는다. 짧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만추(晩秋)의 향연에 취해 즐거웠던 하루의 끝자락,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불타고 있다. ★



하상 복지관 내 식당 풍경

이한결

내가 사는 동네는 대모산 자락을 바라보는 조용한 곳이다. 이사 온 해에는 아들이 고교생이었는데 현재는 결혼을 하여 어느새 세 아이들의 아범이 되었다. 손자 손녀가 고교생들이 된 지금은 아들도 중년에 접어들어 몇 해 후이면 반백년의 세월을 바라보고 있다. 아침이면 여전히 온갖 산새들의 재잘거림이 잠을 깨우지만 우리 동네도 고층 아파트들이 줄을 지어 들어섰다. 나의 노년이 슬며시 자리를 잡았듯이 긴 세월의 강도 소리 없이 줄기차게 흘러내려왔다.

세 살 적부터 오른쪽 다리에 찾아온 소아마비 증증 환자이지만 교회 편집실에서 책을 만들며 오랜 직장 생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다니며 대가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평생 일을 해 온 습성이 몸에 배어 집에 있지 못하는 나는 일거리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하상장애인 복지관 내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 생소한 일터였다. 늘 직장에서 식당 전문가들이 해 주는 점심을 먹기만 해 온 내가 식당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과감히 야채 상자가 수없이 배달되어 오는 이른 시간에 식당으로 출근하여 야채를 다듬는 자리에 섰다. 수 년을 일해 온 전문가의 손길이 쉴 새 없이 분주한 곁에서 서툰 솜씨로나마 파도 다듬고 양파의 껍질도 벗기고 당근도 손질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어느새 햇수로는 이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야채를 다듬는 홀에서 점차 옮겨져 이제 장화를 신고 부엌의 홀로 들어가 야채를 썰는 자리로 바뀌었다. 내가 언제쯤 전문가의 고르고 빠른 칼도마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아직은 의문이지만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며 기분이 상쾌하다.

특히 함께 일하는 장애를 입은 일꾼들의 모습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다. 이른 시간에 먼 곳에서 달

려 나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간다. 자신의 약한 몸 상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따듯한 점심 한 끼를 장애인들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들에 사뭇 감동의 물결이인다.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시키며 한 시도 쉴 새 없이 몸을 날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노래 가사 처럼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특히 인상 깊은 장면은 요리 전문인들의 열정 어린 모습들이다. 음식의 영양 분석을 오차 없이 빚어내는 요술쟁이 영양사님의 우직한 태도가 인상적이다. 음식의 영양 분석적인 수치를 날마다 새로이 빚어냄은 물론이려니와 시식하는 회원들의 식탁에까지 찾아가 친절한 안내를 잊지 않는 모습을 대할 때는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은 따스함마저 전달된다.

수 백 명이 찾는 장애 입은 회원들의 한 끼 점심 식사를 위해 쉴 틈 없이 분주히 움직이는 전문 요리사님들의 열정을 지켜보며 아직은 먼 길이지만 나 또한 칼질이라도 고르고, 알맞고, 격조 있는 모양으로 해 보고자 마음을 다져 본다. 어느 잔칫상에 앉아 음식을 대하듯이 날마다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하상 장애인 복지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야말로 소중하다.

특히 때때로 찾아 들어서는 단체에서 오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한 번도 싱크대 물에 손을 담가 보지 않은 키가 큰 고교 남학생들이 네 다섯 명씩 들어서 식기를 세척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국민 체조시간에 똑같은 제복을 갖추고 운동을 한 후 배식을 하고 식단을 나르는 어머니 봉사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아마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식단을 받아들 힘도 없는 장애인들의 식탁을 도우면서 혹시 각자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온갖 인생의 시름도 씻기는 순간을 맞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잠시 해 본다.

이른 아침 산새들의 재잘대는 다정한 노랫소리로 시작되는 하상 복지관의 식당은 앞날에도 수백 명 회원들의 건강과 한 끼의 행복을 굳건히 지켜 주리라 기대감에 젖어본다. ★

하상과 흥실엄마

이흥실

어느덧 30년이 되었지만 어제같이 느껴진다. 처음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나는 너무나 재미있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하상에 행사만 있으면 나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바자회를 하면 너무나 좋아서 선생님 간식을 해갔다.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다. 보리밥에 열무김치 갖은 나물에 된장 짬장을 넣어서 비벼 호박잎에 싸 먹고 늙은 호박 채 썰어서 부추와 매운 고추를 넣어서 호박전을 부치고 마약김밥도 해먹고, 김장김치 다녀 놓고 김치만두도 만들어서 선생님들 간식으로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고 너무나 재미있었다.

하상에 선생님들은 나를 흥실 엄마라고 부른다, 장애 학생들 야외수업 가면 휠체어도 밀어주고 한 지 공예도 배우면서 새로운 취미도 살리고 친구들도 사귀었다.

장구도 배워서 예쁜 한복 입고 강당에서 사물놀이 배운 것을 발표도 했다.

빵 후원 봉사도 12년을 했다. 코레일에 계신 구관희선생과 김수호 선생이 와서 차량도 후원을 해주었다.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바쁠 때는 아들과 딸도 봉사를 시키고 우리 남편 직장암 수술하고 회복기에는 남편도 봉사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남편이 항암 주사를 맞고 병원에 있을 때 하상에서 최우수 봉사상을 받게 해주어서 장나라 가수님과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는 같은 층 간호사 선생님들과 같은 병실 환자들도 다 같이 축하해 주고 우리 남편이 더 기뻐했다.

나는 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식당에 손이 부족할 때면 식당에서 있었고, 감장을 담그는 날은 식당에서 봉사자들에게 김장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삶아서 보쌈과 감장 끝내고 맛있는 점심을 봉사자들과 선생님 모두 맛

있게 먹었다, 서로의 얼굴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즐거워하기도 하며 어르신들 김치 나누어 준다고 리어카에 김치통을 싣고 집집마다 나누어 주러 다니면 얼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발갱게 얼은 얼굴을 비벼주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었다. 나 같이 이런 에너지를 받아 가며 봉사를 하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다.

내 나이 60중반을 넘어 가는데도 하상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다. 코로나 이후로 뜸해진 봉사자들을 다시 뛰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

나와 함께 30년을 지내온 하상, 항상 그 자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우리 하상,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하상 현관 앞에 계절마다 피는 꽃들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기웃거리게 만드는 꽃밭, 고운 꽃들이 사진 한 컷을 찍게 만들고 행사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도 모두 나와 같이 어울리게 만드네요, 앞으로도 발전해서 영원토록 기억하며 함께 할 것이다. ★



어른다운 어른

정선혜

2008년 12월에 입사하여 올해로 1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다양한 팀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 안에서 많이 웃고, 울며 행복한 날과 슬픈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15년을 곱씹어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많은 장면들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중에서도 사례관리를 담당했던 시절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2011년 쫘,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호흡기 장애로, 치매에 걸린 노모와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누님과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른 체격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인데도 어머니와 누님을 돌보느라 본인은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기저귀를 착용하시는데 가까운 마트는 기저귀 값이 비싸고,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려면 먼 거리의 마트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심하여 집을 잠시라도 비우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호흡기 장애로 인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기저귀를 대신 구매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와 인근의 요양보호센터와 연결하여 마트보다 싼 금액으로 기저귀를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였으며, 후원 회의를 통해 월 10만 원씩 정기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안내하고자 재방문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저는 젊은 시절에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후원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

왔는데 내가 힘들다고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다시 일을 시작해서 받은 만큼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그러시고는 다른 지원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돌봐야 할 가족이 둘이나 있어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무리였고, 안부 전화를 드리는 정도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해 저는 팀이 변경되어 인사를 드린 후 아주 가끔씩 안부만 여쭙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쁜 화분과 함께 편지 한 장이 제 책상에 놓여있었습니다. 어머님과 누님이 하늘의 별이 되어 더 이상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후원을 끊으셨다고 하시며,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꼭 다시 일을 하여 내가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먹먹한 마음과 함께 사회복지사로 일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또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비판하지 않고 도움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어른다운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저런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면 가끔씩 그분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아 안부를 모르지만 아무쪼록 어느 곳에 계시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



마을 축제 "함께, 하상"

조하진

오늘 엄마랑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 "함께, 하상" 다녀왔다. "함께, 하상"에서는 먹거리, 슈링클스 만들기, 세계의 놀이 체험하기, 퀴즈로 만나는 에너지 전환 등 많은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바로 점자 이름 쓰기, 퀴즈로 만나는 에너지 전환이었다. 우선 퀴즈로 만나는 에너지 전환에서 퀴즈를 푸는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나와서 틀렸다. 문제가 틀리면 그냥 답 알려주고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맞을 때까지 보내주지 않아서 당혹스러웠지만 끝까지 풀고 천연 수세미를 받아서 뿌듯했다.

점자 이름 쓰기에서는 점자로 이름을 쓰고 내가 직접 점자를 만져보면서 '내 이름이 이렇게 어려웠나?' 생각했다. 또 '점자를 배우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배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동고 형들이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를 부르셨다. 노래를 듣고 떡볶이랑 부침개 등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맛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먹었다. 갑자기 어려울 때 엄마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책 녹음 봉사한 것이 떠오른다. 나도 크면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오늘의 일기 끝!! ★

여정에서 만난 인연들

한경희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때 만나게 되는 인연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뜻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걸 시절 인연의 만남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

내가 00라는 친구를 케어하기 위해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오던 날이 생각난다.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부는 초봄이었다. 복지관 앞에서 계시는 성모님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잔잔한 미소로 마음이 아직 힘든데 어려운 일을 하려는구나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듯했다.

남편을 여의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내게 생전 처음 만나게 된 발달 장애 00는 내 아픔을 희석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매일 드나드는 복지관에서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에게서 느껴지는 마음과 행동들은 의외에 모습이었다. 주간보호에 오는 장애 친구들은 모두 다른 상황인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식 없이 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00를 운동 시키고 간식 먹이고 집에 데려다 주는 단순한 일인데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기초부터 가르쳐야 하면서 부딪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웃음을 잃지 않고 대하는 모습은 내가 욕심을 넘기고 살도록 경험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모습이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모습은 세상 밖에 나갔을 땐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불편하게 느끼는 대상인데 이곳 하상에선 따뜻한 보호와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는 선생님들의 마음 자세는 가슴 밑바닥에서 나오는 진심이며 선생님의 의무가 아니고 진정한 본연의 사랑이었다.

나의 하루는 그저 시간이 가면 하루를 때우듯 그렇게 시작했는데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이 이곳 하상 선생님들의 눈에서 웃음에서 나오는 그 좋은 에너지가 내게도 스며들며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니 웃음이

나며 00와 보내는 시간이 어렵지 않고 편해지면서 언어로 통하지는 않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교감이 되어 가는 걸 서로 알게 되니 같이 다닐 때 일어나는 돌발 행동도 현저히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팔도 끼고 믿음이 생겼는지 내 어깨에 기대어 줄기도 한다.

사람의 관계란 굳이 포장하여 만들지 않아도 그 속의 내면의 냄새는 시간과 비례하는 것 같다.

하상 선생님들은 인생의 잣대로 재면 나보다 훨씬 짧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지혜와 사랑의 깊이는 내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저런 분들이 계셔 세상이 그나마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활동지원사라는 일은 한 사람의 소소한 일상의 케어가 아니라 그의 삶에 전체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 주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를 이어 나가는 모습인데 여기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선생님들의 삶은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다해 즐기며 나누는 것 같았다.

어느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말씀이 사랑은 책임질 때 그 사랑이 완성되며 아름다운 거라고...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사랑의 책임과 행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계셨기에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내음이란 걸 알게 되어서... ★



나의 꿈, 나의 미래

한동현

‘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직업이다. 꿈과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많은 매체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꿈 하면 직업이 생각나는 것은 ‘꿈이 뭐야’라는 질문에 명사 형태의 직업 이름으로 답변하던 것이 굳어져서이지 않나 싶다. 운 좋게도 나는 원하는 직업이 나름 확고한 편이다. 컴퓨터공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직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컴퓨터공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나의 꿈 역시 개발자 인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꿈과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꿈이 거창한 문장일 필요는 없다. 개발자와 같이 특정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삶의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꿈과 직업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론 내 꿈이 개발자가 맞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직업은 개발자이다. 그렇다면 직업과 꿈이 동일하다면 좋은 것일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내 스스로 나의 꿈이 개발자라고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리라.

꿈과 직업이 같으면 내가 그것에 나의 인생을 걸게 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무언가를 그만큼 열심히 도전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나의 방향성을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 마치 청소년기처럼 이러한 방향성을 다시 찾는 것은 아마도 많이 어려울 것이다. 원하는 직업, 다시 말해 꿈을 이룬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꿈이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좇을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향하거나 헤맬 수 있다. 역시나 이러한 과정에서 나의 방향과 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앞서서도 말했듯 이러한 것들이 당연시되는 청소년기가 아닌 이상 꿈을 찾는 과정

에서 분명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항상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쫓으며 여유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목표가 무언가 할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운택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꿈과 직업이 같지 않다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내 꿈을 좇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꿈을 좇는 도구 중 하나로 나의 직업을 이용할 수 있으니 꿈을 더 확장해 나가거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 꿈을 바탕으로 비슷한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 직업을 갖는다는 틀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개척할 수도 있다. 꿈은 일시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 평생에 있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과 다른 꿈을 가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기가 생애 주기 중 나의 꿈과 직업 모두를 찾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청소년기 과업 중 하나가 자신의 꿈을 찾는 것이다. 즉, 꿈과 직업을 찾는 것이 청소년기에는 당연시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사회로 나가 활동을 하고 있는 어른들의 경우 꿈을 다시 찾는 것이 어렵다. 급변하는 사회의 중심에서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고 성찰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잡지 못해 꿈을 찾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아보다 뒤쳐질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에 직접적으로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꿈을 찾는 데 나름의 보호막 역할을 해 주는 것 같다. 결국 주어진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니 앞으로는 단순히 직업을 찾는 것보다 내 꿈을 찾는 것에 좀 더 노력해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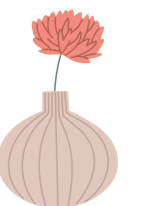
나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컴퓨터 공학에 진학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코딩? 서비스 개발해 보기? 코딩은 취미로 해도 충분하다. 지금 하는 코딩이 대학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대학교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물론, 코딩을 모르는 친구들에 비해 시작점은 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학 생활 네네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사실 답은 공부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주요 과목이라 불리는 국어, 영어, 수학 공부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의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잔소리 때문이라기보다 그래야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컴퓨터공학과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컴퓨터 공부만 하고 교과 공부에 소홀하다면 나는 대학에 진학하여 원하는 꿈에 다가갈 수 없다.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확충과 논리적 사고력, 다양한 기초 학문에 대한 학업 능력을 키워두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공부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통과의례이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성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 더군다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서는 장애 또한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물론, 여러 기술의 발전 때문에 장애라는 것이 공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마 시각 장애가 있어서 좋은 대학을 못 갔다는 말은 단순 핑계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이나 정책이 많이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비시각장애인들과 달리 학원을 다니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인터넷 강의에 모든 것을 의존하자니 화면 해설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수학이다. 강사님들은 대부분 칠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데 귀로 듣기에는 단순한 대명사와 숫자의 나열처럼 들릴 때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면 해설 강의를 제작되고 있지만 역시나 제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어 멘토 수업은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의 꿈과 미래,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만 서술했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도 해 본다. 열심히 노력하여 꿈을 이루고 난 후에는 시각장애가 있지만, 아니 시각장애와는 상관없이 과거에 나의 힘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미래의 후배들이 지금의 나와 같이 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



행복나누리 자조모임

한철호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년 어느 날 영양사 선생님께서 하상장애인복지관 행복나누리식당에서 봉사를 하면서 홀 서빙하고 식당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해서 담당자 선생님께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월까지 봉사를 하고 6월에 구청에서 일반형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6월 28일경 이력서를 쓰고 7월 1일 날짜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수급자 탈락이 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일을 하게 되면 수급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월 2일부터 행복나누리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수급비가 줄어들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많이 생각나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채소를 다듬고,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배식하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퇴근하면 하루가 마무리되고 다음날에 복지 일자리와 일반형 일자리가 모여 모임이 생겼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식당 이름을 따서 “행복나누리 자조모임”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활동 정하기를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쳤습니다. 그리고 생일파티도 하면서 케이크를 다 같이 먹고 상품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대진공원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같은 날에 취업자 송년회가 있어서 참석하였습니다.

취업자 송년회에서 클럽을 빌려서 춤추고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춤을 잘 추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맛있는 음

료수도 먹으면서 송년회를 즐겼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강남구청에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되서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급식지원으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와 취업자 간담회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 속독제 사용하고 백신 여러 번 맞았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오면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누리 식당에서는 식당에서 먹는 급식 대신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으로 포장해서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상하지 않는 음식을 햇반, 김 등 간편식으로 나갔습니다.

취업자 간담회는 모두가 갈 수 없어서 우수사원만 만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수사원들과 과천동 물원에 가서 동물원 보고 사진 찍고 왔습니다.

마을축제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취업자 우수사원으로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계시지만 담당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휴가를 보내고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집에서 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만두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고, 집에만 있으니까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마무리하고 강남 구청에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다시 하상복지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자 간담회에서 온라인으로 과자집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만든 과자집을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 상을 받았습니다. 4월에 강남구청장상 표창장 받았습니다. 잘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표창장을 준 것 같습니다.

10월 경 하상온마을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걸음 수, 풍경 사진 찍으면서 미션을 하고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21년 11월에 취업자 간담회 우수사원으로 상을 받게 되었고, 우수사원으로 롯데월드에서 사진도 찍고 놀이 기구도 타고, 맛있게 밥도 먹으면서 재미있게 놀고 왔습니다.

같이 행복나누리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충남 보령에 펜션 잡고, 폭죽놀이를 하였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을 기념으로 형과 휴가를 내어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부산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광안리 대교를 갔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대여하고 놀고 피자도 먹었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취업자 간담회에서 안성팜랜드를 가고 조별로 사진 미션을 하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퇴사하시기 전에 깜짝파티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선생님이 팀장님이 오시고 11월에 취업자 송년회를 하며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업자 송년회에서 카리스마 상을 받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이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자조모임은 송년회로 쿠우쿠우에 가서 회비로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오락실도 가고 인생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시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하상장애인복지관 30주년을 맞아 행사를 하였습니다. 30이라고 쓰여있는 풍선을 잡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5월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전 담당 선생님 보러 일하는데 찾아갔습니다. 커피 한잔 먹었습니다. 이야기할 시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커피 마시고 바로 집으로 왔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이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누리자조모임에서 유람선 타기를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유람선 타고 비둘기에게 먹이도 주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월에는 청년 밴드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드럼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럼 치기 전에 멤버들 소개하고 “행복나누리청년밴드”라는 팀명도 만들고 리더도 뽑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멤버들이 모여 이름과 나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자를 맞추는 게 어렵고 다 같이 모여서 합주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발이 불편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킥은 빼고 다른 멤버가 킥을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2월 21일에 청년 밴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연에서 드럼도 치고 노래도 부르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일하며 동료들과 같이 활동하고 싶습니다. ★



서른하상 ★ 이야기

발행일	2024년 2월
발행인	허명환
발행처	하상장애인복지관
주소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3(개포동 12-5)
전화	02-451-6000
팩스	02-459-4377
웹사이트	www.hasang.org

^{*}HS 하상장애인복지관

서른하상
★ 이야기